



**ID:MOOD** 202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비전과 전략

**ID:LIBRARY** 정확한 색 구현을 위한 컬러칩 | 지속 가능 디자인을 위한 지속 가능 소재 | 디자인도서 추천

**ID:INSIGHT** 글로벌 디자이너의 인사이트

**ID:ARCHIVE**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산업디자인협회 | 인천디자인 산업계의 중심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 인천 최초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주)디자인톡톡



해당 이미지는 AI를 활용한 창작물입니다.

2024  
IDSC Digital Design Magazine  
VOL\_01

## ID: MOOD

01



### 04 202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비전과 전략

인천이 「디자인 산업도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제2차 2030 인천디자인마스터플랜의 주요전략 및 비전 공유

## ID: LIBRARY

02



### 20 정확한 색 구현을 위한 컬러칩

산업에서 컬러칩이 사용되는 이유와 활용에 대해 알아보고,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컬러칩 무상 대여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 24 지속 가능 디자인을 위한 지속 가능 소재

지구 최대 과제인 「지속가능개발」의 배경을 살펴보고, 「지속가능 소재 1탄,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디자인의 우수사례와 인천의 바이오소재 기업정보 제공

### 34 디자인도서 추천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24년도 상반기에 구축한 신간도서 35권에 대한 정보와 추천 도서 서평 수록  
(특별기고, 인천대학교 이운형 교수)

## ID: INSIGHT

03



### 38 글로벌 디자이너의 인사이트

2024리빙디자인세미나에 초청된 글로벌 디자이너 5인의 디자인 인사이트를 분석

## ID: ARCHIVE

04



### 50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산업디자인협회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의 산업디자인을 함께 일궈온 인천디자인협회의 역할과 관계를 조명하며 협회장 조영민 교수의 인터뷰 수록

### 56 인천디자인 산업계의 중심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인천을 매력적인 디자인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며 협회장 김희경 대표의 인터뷰 수록

### 62 인천 최초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주)디자인톡톡

(주)디자인톡톡을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성진 대표와의 인터뷰 수록

### 72 인천지역 디자인 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정보(가나다 순)

### 73 디자인전시행사 및 홍보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SNS >

blog <https://blog.naver.com/idsc0203>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idsc\\_/](https://www.instagram.com/idsc_/)

facebook <https://www.facebook.com/idscfb>

< IDSC >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상·하반기로 발행하는 디지털 매거진입니다.  
본 매거진에 수록된 정보는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외부 필자를 통한 원고  
혹은 인터뷰의 경우 개인의 의견을 담고 있어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주호  
기획총괄 배민호  
편집인 강연주  
자문위원 이운형 민지영 김희경 김지원  
사진 IDSC Studio  
디자인 프레임브 (김지원 정예나)  
표지 임고은

검수 양재훈  
등록번호 ISSN 3058-3950  
발행일 2024 - 07 - 30  
발행처 (재)인천테크노파크 남동인더스파크지점(디자인사업단)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홈페이지 www.idsc.kr  
연락처 032-260-0203

# 202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비전과 전략

MOOD



인천의 산업디자인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다. 강산도 두 차례나 변했을 20년, 인천광역시도 산업도시에서 디자인 산업도시로 완전히 바뀌었다.

### 과연 인천은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을까?

디자인지원센터는 정기간행물의 첫 이야기로 산업디자인 육성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인천광역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비전과 전략들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 Since 200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시작



2004년 1월 30일 오후 3시, 인천시청 대강당(당시 본관 2층)에서 첫 번째 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안건은 「2004년 인천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부제 디자인문화조성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 인천테크노파크)가 추진할 공식적인 첫 디자인사업이 논의되었다.



지자체 최초 디자인코리아 유치 2009디자인코리아 국제회의의 전경(2009 송도컨벤시아)



디자인국제기술교류사업(2005~2014)  
2014 밀라노디자인워크 참가 인천관 운영

인천광역시는 인천에 '디자인 DNA'를 심고자 했다. 인천을 매력적인 디자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디자인전문가와 기업들을 모아 디자인협회를 꾸렸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sup>1)</sup>」과 「인천국제디자인페어<sup>2)</sup>」을 시작하였다.

1년 후인 2005년에는 지자체 최초로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광역시청 기업지원과에 디자인 행정을 위한 전문가도 초빙(前 전홍수 전문위원)하였다.그렇게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 육성이 본격화되었다.

1)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개발비용의 80~90%를 지원해 주는 사업  
2) 인천지역의 디자인 인프라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디자인문화행사로 디자인전시, 세미나, 부대행사로 구성



전국고교생 디자인공모전(2006~2010) 2009 시상식



시민 디자인아카데미(2010~2011) 2011 교육 전경,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공무원 디자인아카데미(2012~2014) 2014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참관



중기청 디자인 및 시제품개발지원사업(2013~2015) 2015 성과발표대회, 중소기업청 대강당



청소년 디자인 캠프(2010~2011) 2010 디자인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의 모습



청소년 디자인 교육개발(2012~2013) 12개 프로그램개발 교안자료 인천 전역 초등학교에 배포



디자인나눔 사업, 디자인컨설팅지원사업(2012~2014), 기업별 방문을 통한 디자인컨설팅



정부3.0 인천시 국민디자인단 대통령상 수상(2016)  
성과발표대회 전경(행정안전부, KT스퀘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례 표창(2016, 2019)



세바시 프로그램 인스로드 특집강연  
(2018, 인천광역시 이남주, 목동 KT체임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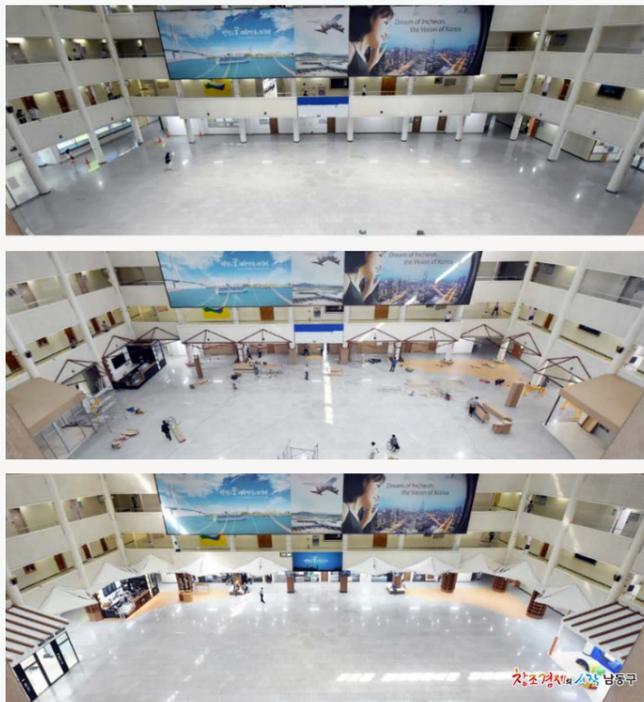
인천광역시×디자인하우스 협업 인천리빙페어 참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관 전경(2020,송도컨벤시아)

2016

2018

2017

2020



2016 인천시청 중앙홀 디자인 프로젝트(전후 비교 사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포상 제도인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2017 킨텍스)



환경디자인 정책 IF디자인어워드 서비스디자인부문 수상(2018 독일)

# 제1막, 인천디자인포트

### Keywords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디자인도시 인천

20년 전 인천광역시 산업도시 인천을 디자인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그 처음 생각과 비전은 지난 2007년 수립된 「인천디자인포트<sup>3)</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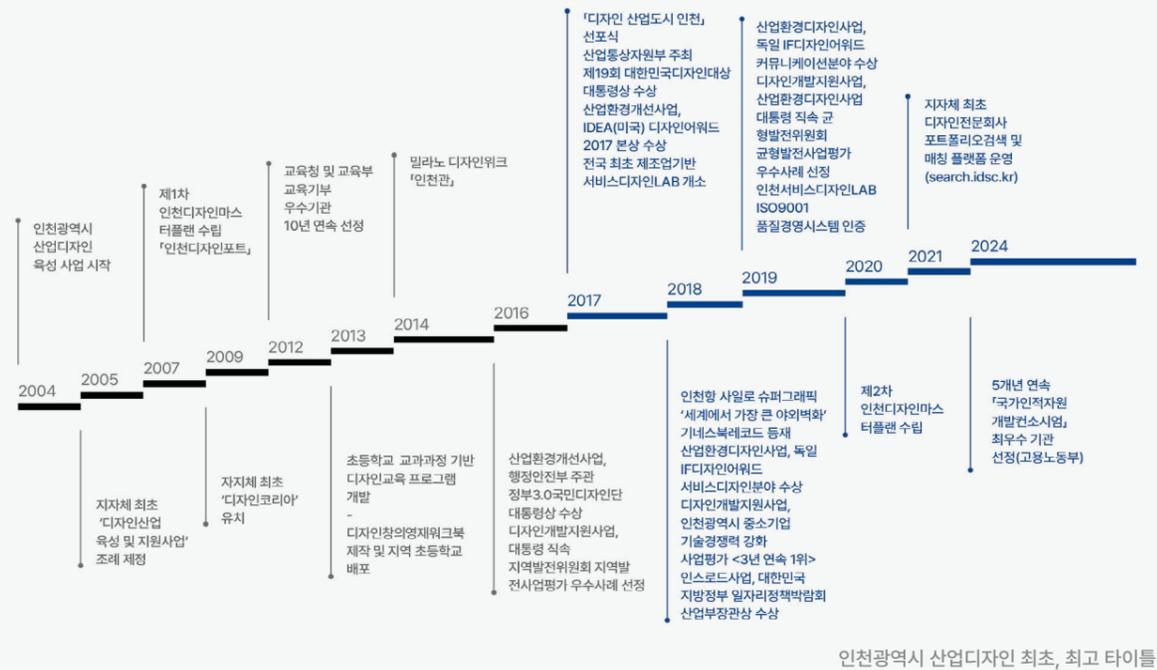
「인천디자인포트」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에서 추진될 디자인 정책을 담은 전략지침서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업무수행 조직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9월, 드디어 <인천디자인지원센터<sup>4)</sup>>라는 전문기구가 탄생하였다.

전문기구를 통해 수행된 「인천디자인포트」의 수행성과는 훌륭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sup>5)</sup>」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사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산업환경디자인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모든 수행성과들을 종합한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19회 디자인대상>에서 '지자체부문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로 아름답게 꽃피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디자인 산업도시 인천 선포식>을 가졌다. 「인천디자인포트」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인천광역시가 명실상부한 디자인 산업도시가 되었음을 분명히 한 순간이었다.



디자인 산업도시 인천 선포식 (2017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서비스디자인LAB 앞)



3)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작한 인천광역시의 제1차 인천디자인마스터플랜  
4)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의2를 근거하여 설립한 전문기구로써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 설치  
5) 노후되고 위험한 산업환경을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으로 디자인하는 사업

# 제2막, 디자인 산업도시 인천의 이야기

### Keywords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 디자인도시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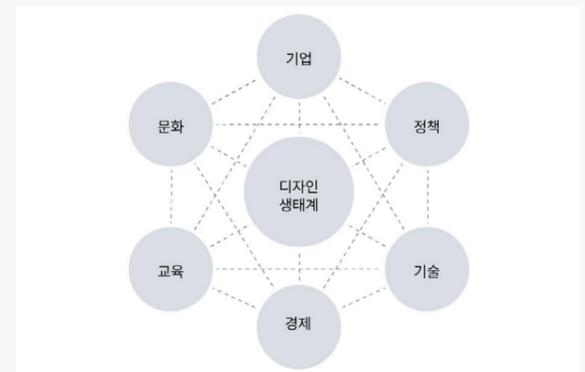
디자인 산업도시로 거듭난 인천광역시는 입장을 달리 하게 되었다. 그동안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디자인산업의 선도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했다.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두 번째 디자인마스터플랜의 비전은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주도 혁신」이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 전략	설명	특징
디자인 생태계 조성	디자인 관련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작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 기업, 정책, 기술, 경제, 교육, 문화적 요소들의 상호작용 ·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디자인 산업 구축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 경제적 성장과 산업 발전 · 글로벌 시장 진출 · 투자유치와 기술혁신 · 정책적 지원 강조
디자인 역량 강화	디자인 관련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작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멘토링 및 재교육 · 최신 트렌드와 기술 습득 ·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디자인 활용	디자인 관련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롭게 작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 사용자 중심 접근 ·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 ·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제2차 인천디자인마스터플랜 4대 전략



디자인 생태계

## < 전략1. 디자인 생태계 조성 >

첫 번째 전략은 인천광역시의 디자인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디자인생태계 조성이란 디자인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 정책, 기술, 경제, 교육, 문화적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노후산단 환경개선 사례(남동국가산업단지(2020~2022))

초창기 인천광역시는 디자인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제일 먼저 디자인전문가와 기업을 정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문 장비와 시설, 기술력을 갖춘 인천디자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디자인생태계의 각 요소들이 협력하고 발전하도록 하였다.

우선적으로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 경제를 창출하고 디자인교육과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통해 산학관의네트워크 교류와 문화 형성을 꾀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시설 환경개선 유도를 위한 정책, 아름다운공장어워드 수상기업 시장님 방문 현판식 개최(2016, 동아일루미눔)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랜드마크 전환 사례. 세계에서 제일 큰 슈퍼그래픽 기네스북 등재(중구 내항 소재 TBT기업 곡물사일로 2016~2019)

인천광역시 2017년에 디자인 산업도시 선포식을 마친 이후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환경개선에 집중하며 디자인 문화산업도시로 한 번 더 발돋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인천광역시는 1950~60년대부터 국가수출산업단지 조성되어 왔기에 40년이 넘는 노후 산업단지 80%를 차지하는 상태였다. 노후화로 인한 환경적 위생 문제는 인력 기피, 산업경쟁력 약화의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발생시켰고 이를 타개하고 디자인 산업도시다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2016년 「인천가치재창조<sup>6)</sup>」이라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인천광역시의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은 국내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당시 「Industry 4.0」이 전 세계적인 이슈였기에 산업환경의 노후 문제는 비단 인천만의 것이 아니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인천가치재창조」라는 산업환경개선사업은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2017 미국 IDEA 본상, 국가직 신입사무원의 필수 연수 코스로 지정, 2018 독일 IF디자인어워드 서비스디자인 분야 수상, 기네스북 레코드 등재, 세바시 프로그램<sup>7)</sup>에 우수정책 강연 초청, 2019 독일 IF디자인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분야 수상을 하며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인천광역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도에 <인천환경디자인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인스로드」라는 산업환경 인식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디자인 문화산업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산업시설 일자리 mismatch 해결, 인스로드 취업투어.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자 모집 후 아름다운공장을 견학하며 채용 추진(2017, 아이케이)

6)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은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민선6기에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쟁력을 찾아 창의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여러 사업들로 구성됨.  
 인천시 산업정책과(담당 기술팀)와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산업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산업환경디자인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함.  
 7) 'Industry 4.0'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제조업을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을 뜻함. 2011년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회에서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4년 6월 '제조혁신 3.0'을 발표함  
 8)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는 한국의 강연 프로그램으로, 영감을 주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

### <전략2. 디자인 산업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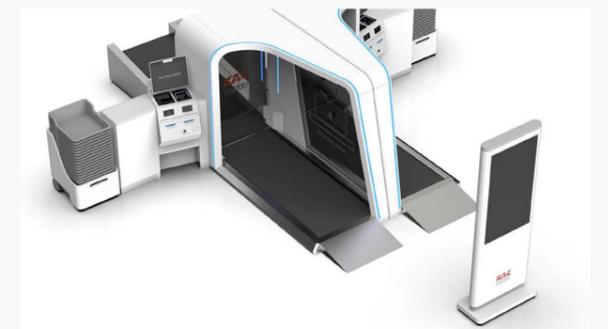
두 번째 전략은 지역의 디자인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디자인 산업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오랫동안 추진돼온 만큼 기업의 디자인개발 수준과 형태도 다양해졌다. 인천광역시는 디자인개발 수준이 높은 기업부터 도서 지역의 영세기업까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온 기업이 추구하는 기술 융합형 디자인개발과 도서지역 등 사회적약자의 소외를 방지하고자 추진되는 디자인개발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디자인수요시장의 확장을 위해 기업의 디자인개발은 보다 확대되 지원대상은 세분화하고 지원 방식은 맞춤형하여 더 고도화된 디자인시장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형성된 디자인 시장 안에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자인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디자인전문회사의 검증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주관기관 검색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투명한 정보검색 시스템은 건강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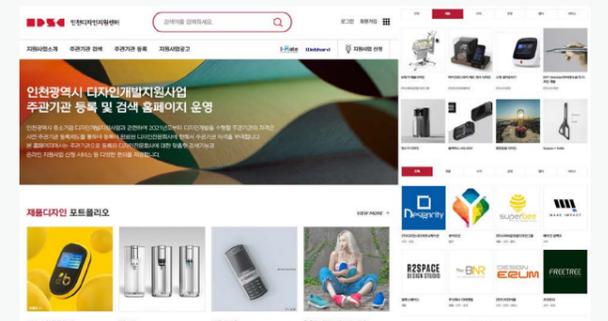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매년 디자인기업의 사업 운영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검증하고, 디자인 개발 수행 능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회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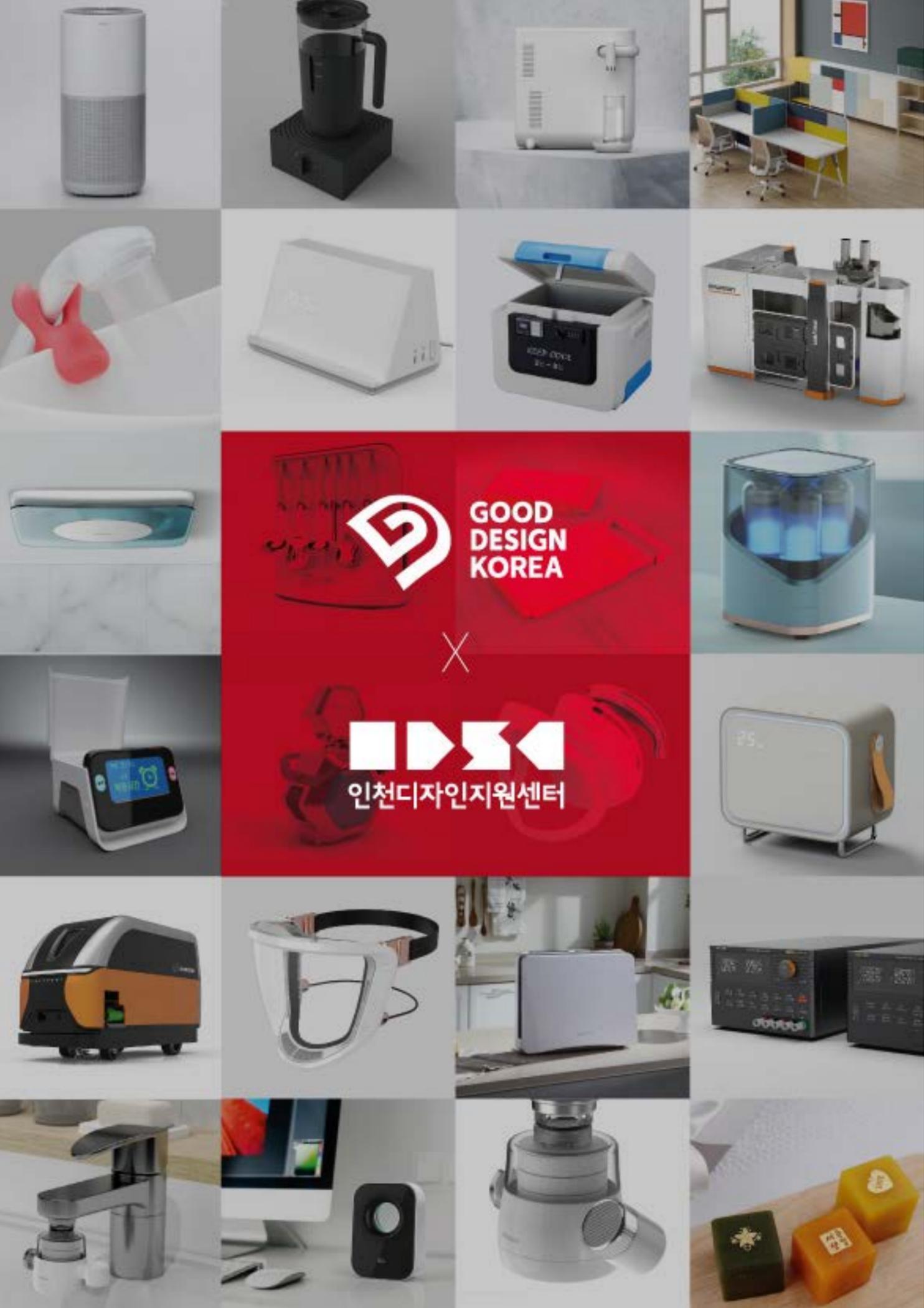
도서지역 디자인개발지원 사례(2023 강화도가림파)



기술융합형 디자인개발지원 사례(2023)



공정한 디자인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한 주관기관(디자인전문기업) 검색페이지 운영



2019~2023 5년 연속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및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



< 전략3. 디자인 역량 강화 >

세 번째 전략은 인천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천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우수디자인전문기업이 탄생했다. 그만큼 인천의 디자인 공급시장은 아직 디자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성장단계>이다. 그렇기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디자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구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지난 2016년 인천광역시와 운영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에 양질의 디자인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sup>9)</sup>」 사업에 응모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인천광역시는 기업의 인하우스디자이너 또는 디자인전문기업의 중간관리자가 수행하는 디자인업무를 특화하여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으며 최신의 정보와 기술을 교육하는 연 30개 내외의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 개소한 인천광역시의 디자인교육센터는 설립된 이후 2023년도까지 5개년 연속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및 자율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고 있다.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선정, NCS기반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전문교육지원(2017년 1월,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분리하여 인천디자인교육센터 설립)

9)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150개 내외의 기관만이 선정되고 있음.

< 전략4. 서비스 디자인 활용 >

마지막 전략은 서비스디자인이다. 서비스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실패 확률이 적다. 인천광역시 산업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 기반의 서비스디자인LAB」을 특별히 고안하였고, 시장 수용성이 큰 제품개발이 수행 되도록 기획단계부터 검증단계까지 특화된 서비스디자인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어드트 인천디자인지원센터, 환경디자인센터, 디자인교육센터라는 3개의 전문기구와 서비스디자인LAB이라는 연구 시설까지 운영하며 디자인 산업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또한 끈끈한 연대감과 사명감을 가진 디자인협회와 지역의 협력기관들이 존재하며 견고한 생태계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주도혁신, 동반성장으로 이뤄갈 미래

2024년 1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은 해럴드 경제지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을 빛낼 혁신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대상> 「기관부문」대상을 수상하였다. 선정기준이 “동반성장”에 있었던 만큼 「디자인 산업도시 인천」을 만들어 온 모두가 수상자인 셈이다.



인천시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수용성 증진을 위한 실험지원 서비스디자인LAB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위드하라>의 문구가 생각난다. 인천의 산업디자인을 형성하는 이 견고한 디자인 네트워크는 이제까지의 성장동력이었고 인천만의 핵심 전술이다.

다가올 시대는 디지털과 AI로 탄생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의 시대로 기존의 경험으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산업디자인의 생존 법칙 또한 변화의 바람이 매섭다. 이에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신기술과 정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디자인생태계 전반의 빠른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디자인 산업도시를 넘어 디자인 문화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중인 인천광역시가 <급변의 융합시대를 디자인으로 혁신하고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실버산업 제품의 서비스R&D 실험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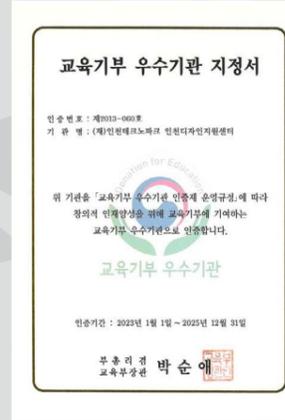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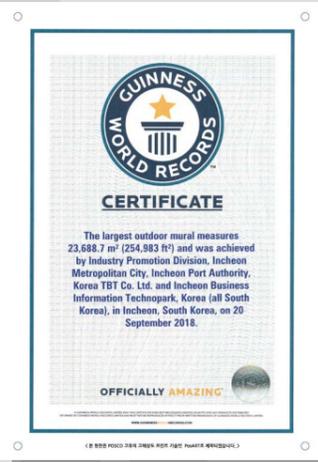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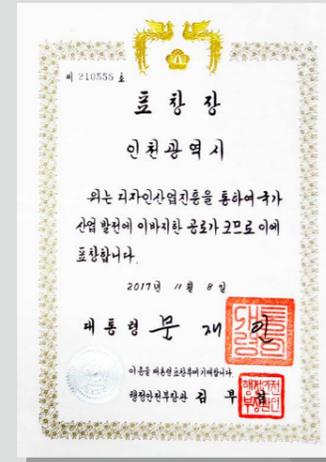


서비스디자인LAB 레고플레이실



사용자관찰을 통한 제품의 사용성 검증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역사와 영광의 흔적



# 정확한 색 구현을 위한 컬러칩



LIBRARY

## “팬톤 컬러칩을 무상으로 대여해드립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7월부터 팬톤 컬러칩 무상대여사업을 시작한다. 주관기관<sup>1)</sup>이나 인천기업,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플라스틱 컬러칩을 대여해주거나 종이 컬러칩 조각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 COLOR CHIPS

## 컬러칩은 무엇일까?



컬러칩은 컬러시스템에 따라 나열된 색상의 정보를 보여주는 작은 조각을 의미한다. 이 색상정보는 고유의 컬러번호로 관리되며 컬러번호만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색상을 일관되게 정의하고 식별할 수 있다.

산업에서 두루 쓰이는 컬러칩은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컬러미스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해 주는 안전장치이다. 가령 인쇄 작업 시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로고 컬러인 'PANTONE 185C'를 '빨강' 또는 '붉은색'이라고 표기하여 의뢰한다면, 실제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로고 색상과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컬러 시스템	설명
CIE 표색계	1931년 국제조명위원회에 의해 개발 빛의3원색(R,G,B)을 기준으로 혼합된 색상에 대한 눈의 분광감과와 같은 시각차이를 XYZ표색계를 사용하여 체계화한 이론
Muncell	색을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로 분류한 시스템으로, 각 색을 숫자와 글자로 체계적으로 표현
NCS	1972년 스웨덴색채연구소에서 개발 자연 색 시스템(Natural Color System)으로, 색을 인간이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6가지 기본 색을 바탕으로 분류
RAL	독일에서 개발된 산업용 컬러 시스템으로, 주로 건축, 도로 및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며, 각 색상에 고유 번호를 부여
FS Color	미국 연방 표준 색상 시스템으로, 주로 군사 및 정부에서 사용되는 색상을 표준화하여 관리
DIC Color	일본 Dainippon Ink and Chemicals가 개발한 색상 시스템으로, 주로 그래픽 디자인과 인쇄 산업에서 사용
PAN-TONE	인쇄 및 디자인 산업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색상 시스템으로, 각 색상에 고유 번호와 이름을 부여하여 정확한 색 재현을 보장



사람마다 색상을 식별하는 기준이 다르고 작업 환경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산업에서 색상은 반드시 컬러칩 또는 고유의 컬러번호로 소통되어야 한다.

컬러시스템은 1900년대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 공업 생산 방식을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다. 동일한 제품을 수없이 재생산하려면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래 예시는 세계곳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컬러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이다.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품과 브랜드에 고유 컬러정보를 부여하고 있다.

-  **코카콜라 병 색상 일관성 유지 / PANTONE 484 C ●**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팬톤 컬러 시스템을 사용하여 병의 빨간색을 정확히 맞춤.
-  **스타벅스 매장 인테리어 / PANTONE 3425 C ●**  
스타벅스는 글로벌 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테리어와 포장재의 색상을 팬톤 컬러로 표준화
-  **애플 로고의 그레이 색상 / PANTONE 429 C ●**  
**애플 포장재의 흰색 배경 / PANTONE 663 C ●**  
애플은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과 디자인을 전달하기 위해 제품 포장 및 액세서리에서 팬톤 컬러를 사용하여 색상 일관성을 유지
-  **맥도날드 인테리어 및 포장디자인 / PANTONE 123 C ●**  
맥도날드는 매장 인테리어와 포장 디자인에서 팬톤 컬러를 사용하여 브랜드의 색상 일관성을 유지
-  **나이키 운동화 색상 일관성**  
**나이키조던 브라이트 레드 / PANTONE 485 C ●**  
나이키는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운동화의 색상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팬톤 컬러를 사용.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디자인과 품질을 보장

1) 인천디자인지원센터로부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인증 받은 디자인전문회사



# 컬러칩의 활용방법



## 1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색상 선택

제품이나 패키지를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는 팬톤 플라스틱 칩을 사용하여 정확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제품이나 패키지가 생산될 때 일관된 색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시각적 표현 및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제조업체 및 고객 간에 색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사용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색상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3 제조 공정에서 색상 일치 확인

제조업체는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 색상을 보장하기 위해 컬러칩을 사용한다. 제조 공정에서 제품에 적용할 특정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컬러칩의 조색 정보를 활용한다.

## 4 색상 일치 보증

컬러칩은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거나 색상 일치를 보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제품 라인이나 시리즈에서 일관된 색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COLOR CHIPS

컬러칩은 구비하는 비용도 크지만 색상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교체하는 유지비용 또한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기업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컬러칩을 구비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플라스틱 사출상품의 제작 비율이 큰 까닭에 플라스틱 소재로 된 컬러칩을 구비하게 되었다.

플라스틱컬러칩은 플라스틱 사출 제품의 색상결정을 직관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종이 컬러칩에 비해 휴대성이 좋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공공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이러한 컬러자료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디자인컬러연구소」사업을 하고 있다.

디자인컬러연구소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된다.

- 첫째, 컬러 회의공간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사업
- 둘째, 필요한 색상의 플라스틱 컬러칩을 10일간 대여해 주는 사업
- 셋째, 다섯가지 색상의 컬러파라레트 제작 지원사업

컬러파라레트 제작지원사업은 필요한 색상 5개를 선택하면 그 색상의 컬러칩 조각과 컬러정보(조색비율, CMYK, RGB, HTML 변환정보 등)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컬러연구소 사업의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우측 큐알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컬러연구소 QR Code

## 플러스 플라스틱 칩스 컬렉션이란?

<플러스 플라스틱 칩스 컬렉션>은 <팬톤 그래픽 솔리드 포물러 가이드(유광)>의 1,755가지 컬러를 플라스틱으로 표현한 것이다. 솔리드포물러가이드의 PANTONE120C 컬러는 플라스틱칩의 PQ-120C와 소재만 다를 뿐 색상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사정에 따라 플라스틱 컬러칩을 대여하거나 종이컬러칩 조각을 영구히 가져가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 팬톤 플러스 플라스틱 스탠다드 칩스 컬렉션은 총 3개의 타워 형태로 1개의 타워당 600가지 컬러가 수록되어 있고, 100가지 컬러가 꽂혀 있는 6개의 트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 3개의 타워는 01번 색상인 옐로우를 시작으로 한 [옐로우→오렌지→레드→퍼플] 타워, [블루→그린] 타워, [연두+블랙+그레이] 타워로 구성된다.
- 각 플라스틱 컬러칩은 5×4.8cm의 크기로 앞면은 반광, 뒷면은 유광으로 표면이 처리되어 있고 한쪽은 1mm, 다른 한쪽은 2mm 두께로 되어 있다.



1 플라스틱 컬러칩은 종이 컬러칩과 색상은 동일하나 더 휴대성과 내구성이 크다.



2



3

2 플러스 플라스틱 칩스 컬렉션 3개 타워 3 대여할 컬러칩의 색상을 고르고 있는 모습



# 지속가능 디자인을 위한 지속가능 소재 - 바이오소재



유엔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를 '미래세대가 그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명시한다.(Bruntland Commission, WCED, 1987.)

세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구가 보유한 자원의 양에 비해 고갈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 제1막, 지속가능개발

2019 UN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37년 세계의 인구는 지금보다 10억명이 늘어난 90억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국가의 대부분이 물질적 풍요를 꿈꾸는 개발도상국이며,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사회의 인구는 농업사회의 인구보다 4~8배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수렵-채집 사회와 비교하면 15~30배 더 사용한다고 한다.<sup>1)</sup> 앞으로 증가될 90억명의 인구가 만약 산업화된 사회의 인구라고 가정한다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의 자원 소비

가 발생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빨리 자원과 같은 시간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sup>2)</sup> 벌써 반세기 전부터 지속가능개발의 필요성을 알려왔던 UN은 지난 2015년 9월 제70회 유엔총회를 통해 17가지 지속가능개발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상정하였고 193개국의 정상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sup>3)</sup> 그렇게 전 세계적인 E(Enviroment), S(Social), G(Goverment) 경영이 시작되었다.

**Keywords**  
# 바이오소재  
# 지속가능 디자인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2015.9. 제70회 유엔총회 및 유엔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 193개국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17가지 지속가능개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제정

1) 2019, 엘빈카라나 외 2, 소재 경험으로 감성을 디자인하다, p212, 생능출판  
2) 2009, Sustainable Europe Research Institute  
3)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포털(<https://ncsd.go.kr/press?content=1&post=1591>)

## 제2막, 소재, 디자인, 지속가능성

### Keywords

# 바이오소재  
# 지속가능 디자인

전 세계는 소재의 지속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소재가 바로 고갈 위기에 처한 지구 자원이니 당연한 말이다. 디자인의 지속가능성도 마찬가지다. 지속가능 디자인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접근이 바로 소재이다. 과거 당구공의 소재가 코끼리 상아였던 시절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처해졌던 사례만 보더라도 소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2007~2008년 진행된 밀라노공과대학(Politecnico di Milano)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디자인혁신 연구(Vezzoli, Manzini)에서는 지속가능 디자인 방법으로 다음 전략을 제시한다.

구분	세부내용
01	소재 소비를 최소화한다.
02	무독성 및 무해한 소재를 선택한다.
03	재생가능 및 생체 적합성 소재를 선택한다.
04	소재의 수명을 향상시킨다.

지속가능디자인 전략

전략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도서라이브러리에 비치된 <소재 경험으로 감성을 디자인하다. P236-255>를 참고하기 바란다.

좌측의 4가지 전략들은 모두 소재에 대한 것이다. 이 중 3번째 <재생가능 및 생체 적합성 소재>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재생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다음의 경우를 뜻한다.

- 1) 재생가능한 소재의 사용
- 2) 생산공정의 잔여물 사용
- 3) 폐기된 제품에서 회수된 구성요소 사용
- 4) 재활용 소재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주요 소재와 함께 사용
- 5) 생분해성 소재 사용

즉, 생체 적합성 소재란 재사용 소재, 재활용 소재, 새활용(순환자원) 소재, 그리고 아예 자연으로 회귀하는 생분해성 소재로 정의할 수 있다.

## 제3막, 생분해성 소재와 바이오 소재

### Keywords

# 바이오소재  
# 지속가능 디자인

요즘 바이오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바이오산업에서의 '바이오'는 식물을 뜻하며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산업을 3대 바이오산업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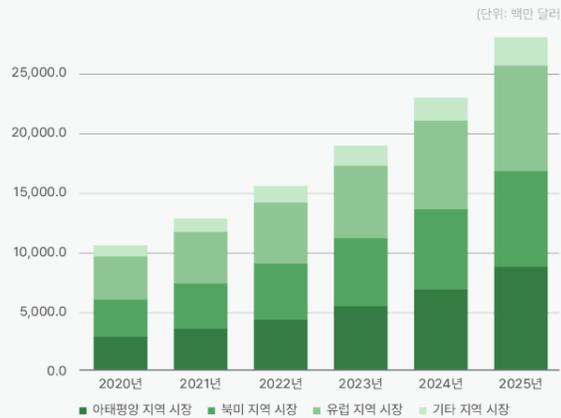
산업	설명
화이트 바이오산업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화학연료·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
그린 바이오산업	작물개량, 식량 안정성 향상, 식물 유전자 조장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레드 바이오산업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생명공학 연구

3대 바이오산업

이 중 디자인의 소재와 관련해 눈여겨 볼 산업은 화이트바이오산업이다. 화이트바이오산업의 골자가 바로 플라스틱 대체소재의 개발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초에 발견된 「플라스틱」은 금형을 통한 손쉬운 양산과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각광받아왔다. 하지만 오늘날 플라스틱은 환경문제의 주범이 되어 현재 「화이트바이오」 산업이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화이트바이오산업은 바이오 플라스틱 또는 바이오소재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세계 지역별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2023 녹색산업인사이드

바이오 플라스틱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104억 6,2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1.7%로 급성장해 2025년에 279억 690만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소재는 25% 이상 바이오(식물)재료를 만들어지거나, 생분해되어 물과 이산화탄소, 부식토로 90% 이상 분해될 수 있는 소재를 뜻한다.

바이오플라스틱은 ①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②석유 화학계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③ 바이오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으로 구분되며 우측 표와 같다.



바이오소재 기본개념도  
출처: 20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바이오산업융합과, <화이트바이오 산업활성화 전략>

## 제4막,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 Keywords

# 바이오소재  
# 지속가능 디자인

전통적으로 디자인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요소(판매촉진제)로 사용되어 왔다.

지속가능이 중요 이슈로 대두된 오늘, 기업들은 이제 디자인에 지속가능을 더해 「지속가능디자인」으로 비즈니스 하고 있다. 이미 발 빠른 국내의 기업들은 바이오소재와 같은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반호른 - 야자수잎으로 만든 가죽(palm leather)

야자수 잎을 특수용약으로 가공하여 가죽대체품으로 제작하였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1제곱미터의 잎재료가 나오며 폐기된 이후 자연으로 돌아간다.

출처 : tjeerdveenhoven 홈페이지



### 올버즈 - 식물섬유를 활용한 친환경 원단 사용 운동화

오바마가 신고 디카프리오가 투자했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신발 브랜드 '올버즈(allbirds)'의 '식물 가죽(Plant Leather)'은 혁신적인 소재업체 내추럴 파이버 웰딩(Natural Fiber Welding)과 손잡고 함께 개발하였다. 올버즈의 나무 섬유 -TENCEL™ 리오셀-는 주로 남아프리카에서 인공 관개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강우에 의존하여 재배됩니다. TENCEL™ 리오셀은 기존 면 소재 보다 95% 적은 물을 사용하며 나일론보다 1/3 적은 탄소 발자국을 자랑한다.

출처 : tjeerdveenhoven 홈페이지



**바나나텍스 - 100%생분해 식물성 섬유**

바나나텍스는 스위스가발 브랜드 퀘스천(Qwstion)이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사해 2020년 설립된 스피노프 기업이다. 바나나텍스(Bananatex)는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자라는 '아바카(Abaca)'란 식물의 섬유질을 이용하여 만든 소재로 아바카의 섬유질을 질긴 종이로 만들고 다시 얇은 조각으로 자르고 꼬아서 가는 실로 만든 후 직조하여 캔버스 천으로 만든다. 바나나텍스는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 10주, 바닷물에서 16주 이내에 퇴비화 및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2019년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후 H&M, MCM, 스텔라 매카트니 등의 패션 브랜드와 다양한 제품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 : bananatex 홈페이지



**그라운드 시스 - 나탈리 카르푸센코 친환경 생분해 아이폰케이스**

국내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전시 플랫폼인 그라운드 시스는 나탈리카르푸센코의 <모든 아름다움의 발견> 전시의 굿즈로 친환경 생분해아이폰케이스를 제작하였다. 식물 섬유, 밀, 나무 등의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으로 돌아가 생분해되는 제품으로 케이스에는 나탈리카르푸센코의글귀가 적혀 있다.

출처 : groundseesaw 홈페이지



**VIVOMER - 생분해 화장품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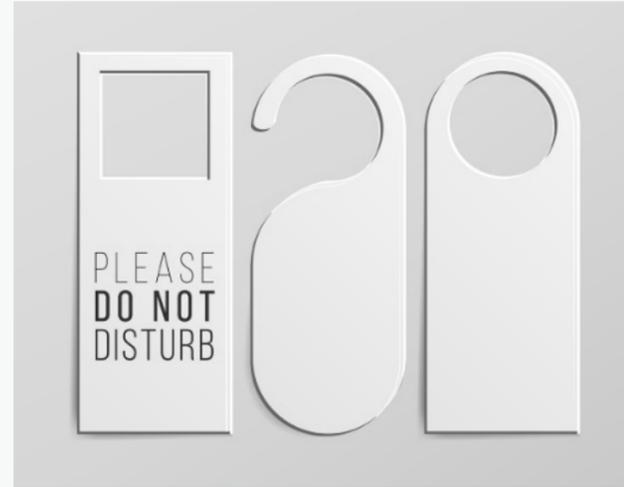
2023 런던디자인위크 어워드 수상작, 쉘웍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비보머라는 소재는 버린후 16주 만에 생분해되는 100% 비건, 퇴비화 가능한 단일 소재이다. 화장품 용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친환경 화장품 포장재를 만들기 위해 4년간 연구 끝에 개발되었으며 2023 런던디자인 페스티벌 글로벌 디자인포럼에서 발표되었다.

출처 : 런던디자인위크 매거진



**바이오필름 - 식품포장재**

바이오필름 대부분이 섭씨 50도에서 분해된다. 그렇기에 자연에서 폐기되었을 때 생분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공미미술대학교 레이븐스번 대학교 제품디자인과 학생 홀리그라운드스는 생분해 누들 패키지를 선보였다. 감자전분, 글리세린, 물 등으로 만들어 먹어도 되는 식품포장재이다.



**PAPLUS - 종이와 옥수수 유래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한 친환경 소재**

일본기업 카미노(Camino)는 생분해 플라스틱 신소재 파플러스(PAPLUS)를 개발하여 식기용기, 건축자재, 자동차 내장재 등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사용된다. 내열 온도 120도까지 가능하여 식기용기로도 사용되며 사용 후 분쇄하여 다시 펠릿화하여 사용하거나 퇴비화 시설이나 미생물이 많은 토양에 묻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생분해할 수 있다.

출처 : ca-mi-no.jp 홈페이지



**라이맥스 - 석회암으로 만든 친환경소재**

일본기업TBM이 개발한 친환경 소재이다. 그동안 자원으로 사용되지 않던 석회석을 무기 재료와 융합하여 만든 신소재로 플라스틱과 종이의 대체재로 활용된다.

출처 : 메트로신문



**민음사 - 워터프루프북**

책장이나 광산에서 버려지는 돌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방수 종이인 '미네랄 페이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물에 젖더라도 변형 없이 다시 건조 후 보관이 가능하다. 제조 단계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기에 수질 오염이 없고 나무 종이에 비하여 온실 가스 발생량이 매우 적은 저탄소제품으로 대기오염이 감소하는 친환경 소재이다. 2020년에는 국내 출판사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디자인 어워드 2020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스텍스 - 홍합수염으로 만든 섬유소재 '시울(Seawool)'**

2021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순환소재 스타트업 '시스텍스(Seastex)' 버려지던 홍합수염을 활용하여 신소재를 만들었다. 홍합수염은 흡음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인테리어용 음향패널로 사용 가능하며 불에 잘 타지 않고 연기와 유독가스가 적어 방염 소재로 활용된다.

출처 : seastex 홈페이지



**조르단- 커피박과 옥수수전분으로 이루어진 친환경 치약짜개**

커피박 소각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 위해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한 친환경 상품을 제작하였다. 커피박30%, 옥수수전분70%로 구성되어 다 쓴 치약짜개는 100%생분해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출처 : Jordan 홈페이지



**언롤서피스- 리트컵 텀블러**

목재 70%, 미네랄 20%, 기타 자연 요소 10%로 이루어진 나무 기반 바이오 신소재인 CXP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 0%를 목표로 국내의 지속가능한 소재를 연구하고, 디자인을 더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개발하는 언롤서피스는, 표면(surface)을 펼쳐서(unroll) 그 안의 소재를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기능성과 디자인에도 집중하여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를 바탕으로 국내 생산을 방식으로 로컬라이징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의 지속가능한 소재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 생산 및 이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

[자료 출처]

- 20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STI MARKET INSIGHT <바이오플라스틱,탄소중립 선도로 지속가능 사회 구축>
- 2023,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 녹색산업인사이드<바이오플라스틱>
- 20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바이오산업융합과, <화이트바이오 산업활성화 전략>
- 2019, 엘빈카라나 외 2, 소재 경험으로 감성을 디자인하다, 생능출판
- 환경부, 지속가발전포털(<https://ncsd.go.kr/ksdgs?content=4>)



Sustainable Design  
**Biomaterials**

**제5막,  
인천의 바이오소재 기업**

인천광역시 또한 바이오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육성중에 있다.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사이트를 활용하여 검색된 인천의 바이오소재 기업은 다음과 같다.

기업명	주요 내용
에코메스	바이오매스기술개발 및 상품화
뉴로팩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가능성 친환경 포장재 개발
이슬산업	PLA시트 개발 및 친환경 포장용기 제조
자원케미칼	생분해성 투명 비닐 제작
에콜그린텍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상품화
두루주	생분해성 수지를 재생한 친환경 농자재 생산
도원바이오 테크	생분해성 수지를 응용한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 제조

인천광역시 바이오 소재 상용화 기업

국내 바이오시장은 원재료에 대한 기술개발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비중이 크다.<sup>1)</sup> 바이오소재를 활용하는 가장 큰 걸림돌인 가격 문제는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바이오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될 문제로 예측하고 있으며<sup>2)</sup> 중소·중견기업에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에 디자인을 더해 바이오상품을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제시한다.



에코메스코리아 -국내 최초 Bio PA를 적용한 Kitchen Utensils 디자인 개발(디자인 : 비콘디자인)

1) 20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STI MARKET INSIGHT<바이오플라스틱,탄소중립 선도로 지속가능 사회 구축>  
2) 20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바이오산업융합과, <화이트바이오 산업활성화 전략>

**Keywords**  
# 바이오소재  
# 지속가능 디자인



에코메스코리아 - 주방도구



에코메스코리아 - 다람쥐주걱

인천광역시 또한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BM(Business Model)발굴 및 디자인개발 지원 분야를 신설하였으며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속가능사회의 변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변화하는 경제체제와 규제에 중소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ESG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도 지속가능 환경(E)을 위한 디자인, 지속가능 사회(S)를 위한 디자인, 지속가능 경영(G)을 위한 구체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의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 디자인을 추진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 수 있기를 바란다.

# 디자인도서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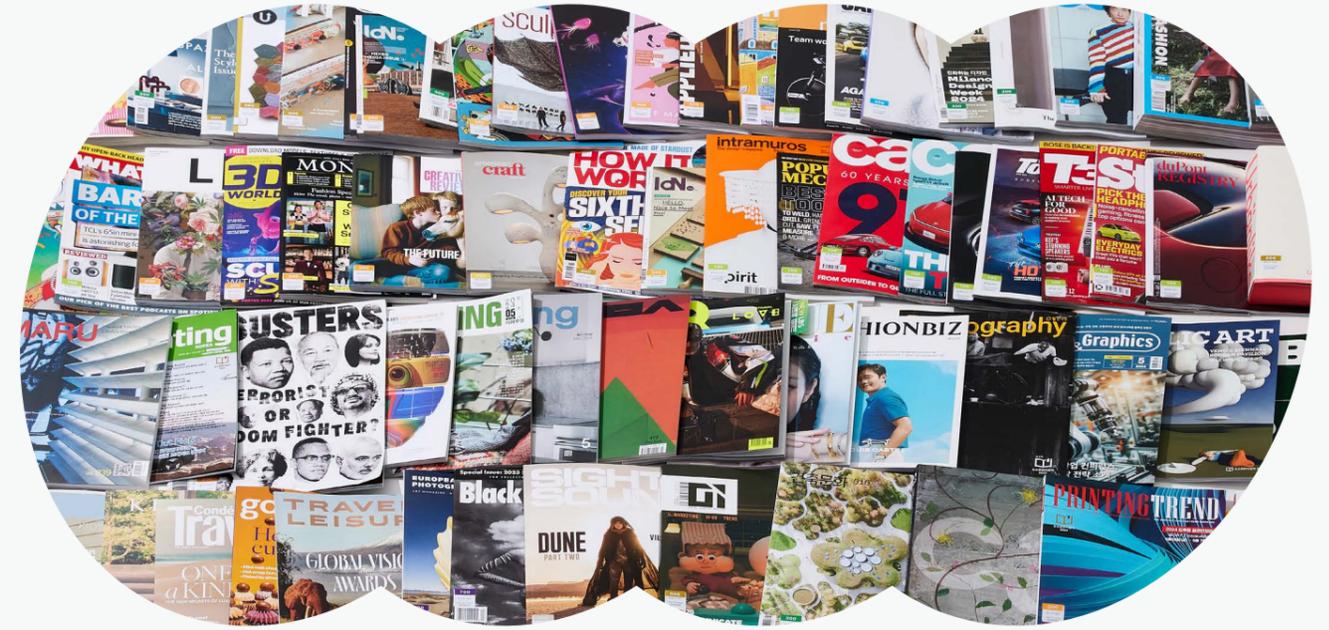


LIBRARY



## “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디자인도서자료실에 따르면 신간도서가 입고되었습니다 ”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매년 수요조사를 거쳐 산업에서 필요로 하고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내 3대 도서 유통 채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과 국회도서관의 인기 디자인도서를 조사한 후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 등록된 주관기관과 뉴스레터 구독자, 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5권을 구매하였다.



국내외정기간행물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디자인도서자료실은 트렌드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하는 기업과 디자이너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 위해 마련된 시설로서 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본 약 6,000여권의 디자인전문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차별화된 「디자인도서자료실」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 디자인도서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디자인도서는 풀컬러로 인쇄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로 배급되는 도서가 한정적이어서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디자인지원센터는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디자인 도서를 선정하여 특별히 해외로부터 공수해 오고 있다.

<신간도서 구매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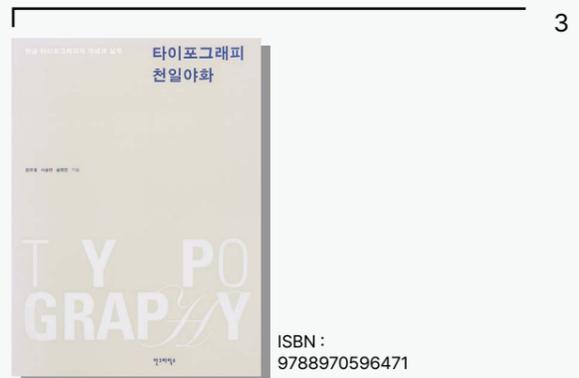


2024 상반기 신간 디자인도서

도서명	출판사
늘지 않는 디자인	디자인하우스
디자인을 위한 미드저니 완벽 활용법	책만
로고 디자인의 비밀	아트인북
트렌드 코리아 2024	미래의창
UI/UX 디자인이 쉬워지는 디자인 시스템 실무 with 피그마	쌤앤파커스
UI/UX의 10가지 심리학 법칙	드마북스
매출 10배 올려주는 상세페이지 기획과 디자인	위키북스
사실은 이것도 디자인입니다	한빛아카데미
아이덴티티 디자인 or 로고 디자인 웬만큼 이해하기	쌤앤파커스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디자인리서치앤플래닝
관점을 디자인하라	행성B
디자인의 정석	아트인북
로고 대백과	이코노믹북스
리서치와 디자인	한빛미디어
마케팅이다	드마북스
반응형 브랜드 로고 디자인 웬만큼 이해하기	현대지성
아이패드 3D 모델링 by 노마드 스텝	지경사
커뮤니티 마케팅	유엑스리뷰
퀴즈로 배우는 디자인	성안당
MSV 소셜임팩트 시리즈 1: 이동(Mobility)	미션잇
MSV 소셜임팩트 시리즈 2: 직업(Job)	미션잇
MSV 소셜임팩트 시리즈 3: 놀이(Play)	미션잇
MSV 소셜임팩트 시리즈 4: 안전(Safety)	미션잇
MSV 소셜임팩트 시리즈 5: 시니어(Senior)	미션잇
디자인의 일상과 실천	인그라픽스
디자인정치학	고드
디자인현상과 이슈2022	에이치비프레스
색이름	오이뮤
알기 쉬운 조명 교과서	에이콘출판사
제공비행	안그라픽스
좋은 아름다움	프로파간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편집&그리드	길벗
타이포그래피서술	그룹와이
페이퍼마진	아인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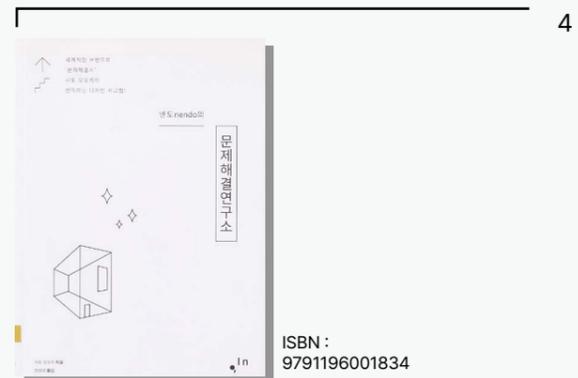
**디자인도서 추천**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 원유홍**

용인대학교 미디어디자인학부 김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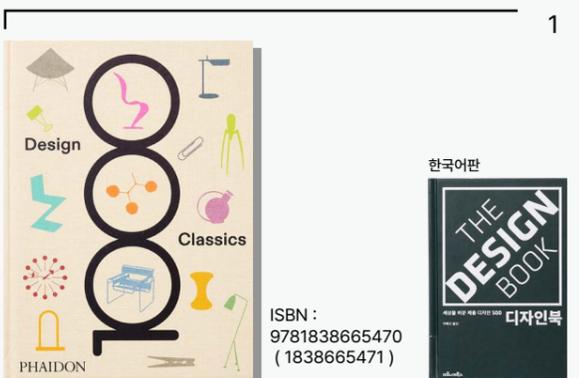
책을 통해 미래의 디자이너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단순히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 외에도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타이포그래피의 그리드와 칼럼과 마진 등의 시각적 규범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주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자세히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이너 필독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넨도nendo의 문제해결연구소 - 사토 오오키**

강남대학교 문화콘텐츠전공 엄하늘

세계적인 디자인 오피스 넨도의 대표 사토 오오키가 디자인 사고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일상을 일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 말하며, 어떻게 아이디어를 저절로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수록 지하 1층에서부터 출구까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디자인 통찰력이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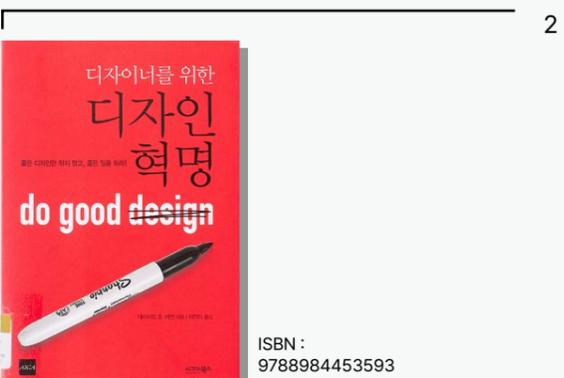


**1000 Design Classics - Phaidon Press**

경기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장승규 (인천디자인서포터즈 14기)

이 책은 세계 3대 출판사 중 하나로 불리는 뉴욕의 Phaidon출판사에서 펴낸 책으로 <Phaidon Design Classics>을 발행한 이후 2022년에 발행한 최신 개정판입니다. 1963년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상징적이며 영향력 있는 디자인 제품을 모은 아카이빙 형식의 책으로 산업디자인의 역사를 만들어온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제품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어 디자이너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판 <THE DESIGN BOOK, 세상을 바꾼 제품디자인 500>도 디자인도서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 혁명 - 데이비드 B. 버**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임고은

이 책은 디자이너로서 단순히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보다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초도형 Producing - 최명영 외3**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담당 강연주 과장

이 책은 디자인의 실체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형 재료를 물질적 재료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의 비물질적 재료까지 확장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재료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형원리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디자인 기법부터 실험적, 미래적 접근의 조형기법까지 총망라되어 디자인 방법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색채의 연상 - 조영수**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담당 정민선 대리

한국인이 '도전, 열정'으로 인지하는 정렬의 빨강색이 독일에서는 '위험'으로, 미국에서는 '분노'로 느껴진다는 이 책은 각 색상별로 지역과 문화에 따라 인식되는 언어가 무엇인지 그 이유와 근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문화 이야기들은 상품을 기획하거나 컬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문가 서평

이운형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공간력 수업 : 아날로그 문화에 관한 섬세한 시각

저자 : 박진배 (뉴욕 FIT대학교 교수)  
출판사 : 효형출판(2023. 5.)

### 목차

- 레슨 1 공간을 탐미하는 법
  - 스토리 01 - 골목길 플라뇌르
  - 스토리 02 - 호텔의 멋
  - 스토리 03 - 커피숍, 카페, 커피 하우스
  - 스토리 04 - 모두가 평등한 장소
  - 스토리 05 - 명장면의 한 곳
  - 스토리 06 - 비밀의 공간
- 레슨 2 품격 있는 디자인을 위하여
  - 스토리 07 - 공공디자인
  - 스토리 08 - 재생의 미학
  - 스토리 09 - 리테일 미디어
  - 스토리 10 - 자투리의 활용
  - 스토리 11 - 시간의 디자인
  - 스토리 12 - 여백의 미
- 레슨 3 존중할 때 얻는 것들
  - 스토리 13 - 책의 향기
  - 스토리 14 - 패션 에티켓
  - 스토리 15 - 빈티지의 아름다움
  - 스토리 16 - 수제의 감성
  - 스토리 17 - 배움의 장

현대의 모든 직업들이 그렇겠지만 요즘의 디자이너들은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로 바쁘고 정신이 없다. 맡은 업무를 잘 해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도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며 자고 일어나면 공부해야 할 것들이 끊임 없이 쏟아진다. 4차산업에 NFT와 메타버스라더니 이제는 AI시대를 맞아 생성형 AI를 배우고 다뤄야 하며 그렇게 피곤해진 머리로 잠시 쉬어야 하는 시간에는 유튜브 쇼츠를 보며 짧은 여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책 한 권을 느긋하게 읽을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시(時)테크가 화두가 되고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즉시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굳이 시간을 요하는 종이책 읽기와 같은 아날로그적인 문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런 의문의 답을 뉴욕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저자가 수많은 여행에서 만난 공간의 이야기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3개의 장(레슨)으로 구성된 이 책은 레슨 1 공간을 탐미하는 법, 레슨 2 품격 있는 디자인을 위하여, 레슨 3 존중할 때 얻는 것들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총 18개의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을 몰입하게 한다. 도입부인 레슨 1에서는 도시의 골목이 가진 미학을 탐구하고 즐기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작가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직접 방문한 호텔과 카페, 도서관 등의 공간이 가진 비밀스런 스토리텔링의 사례들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현실의 짜릿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저자가 직접 찍은 공간의 사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마치 여행을 보는 것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다.



책의 첫머리에서 소개하는 도시 미학을 즐기는 산책 방법인 '플라뇌르'처럼, 목적 없이 걸으며 도시의 골목을 감상하듯 읽다 보면, 저자의 공간을 탐구하기 위한 여행에 동참하고 싶어진다.

아날로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 내용과 물리적인 무게 모두 무겁지 않다. 디자인 전공자는 물론 디자인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다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적인 책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작고 가벼우며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이 내용의 절반을 차지 하니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가볍게 읽어보자. 디자인을 가르치는 저자가 쓴 책답게 표지의 컬러와 타이포그래피도 심플하게 아름답다. 시간을 내어 정독해도 좋고,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조금씩 읽어도 좋다. 습관처럼 보는 디지털 기기의 화면 대신 약간의 시간을 내어 종이책 자체가 주는 물성을 느끼면서 책의 지면을 읽는다면, 훨씬 더 풍부한 정서적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섬세한 시각, 그리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디자인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어지는 레슨 2에서는 공공디자인을 화두로 하여 공간이 가진 의미를 저자의 경험과 통찰로 풀어낸다. 경험은 온라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문화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인 경험을 공간디자인의 실제 사례와 사진들을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공간과 인간의 교감 그리고 좋은 디자인이 가져야 할 조건들과 사람에게 중심을 두어야 할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디자인이란 개념에서 일상의 틈새마다 시간과 디자인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즐기는 안목과 여유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마지막 장인 레슨 3에서는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세계 각국의 도서관과 서점의 사진과 함께 담아낸다. 저자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돈된 생각들과의 대화라고 말한다. "디지털 스크린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읽기를 마치면 스크린 속으로 소멸될 뿐이며 여운이 남지 않지만 종이책은 하나의 실체로 남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되며 경험의 깊이가 다르다" 라는 저자의 말은 특히 마음에 와닿는다. 잉크 냄새, 종이의 질감, 책장을 넘길 때의 가벼운 바람과 특유의 소리 같은 정서적 경험의 시간은 분명 디지털에서는 느낄 수 없다.

아날로그적인 문화 경험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저자가 운영했던 뉴욕의 한식당이 계산서를 뜻하는 'Check'와 한글 '책'의 발음이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책갈피에 끼워 식사를 마친 고객에게 설명과 함께 전달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도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상의 에티켓과 문화를 향유하는 자세, 수작업의 감성과 품격에 대한 이야기, 타인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끝으로 책의 내용은 마무리된다.

# 글로벌 디자이너의 인사이트

2024리빙디자인세미나  
초청기업 5개사

INSIGHT



출처: 스트링퍼니처 인스타그램(@stringfurniture)



비슷해 보이는 기능과 디자인이지만 오랜 기간 사랑받고 인정받는 브랜드와 제품은 따로 있다. 사람들은 어떠한 점에서 특별함을 느끼는 것일까?

‘시대의 획을 긋는 제품,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글로벌 디자이너 5인을 만나 그 특별함을 탐구해 보았다.

디자인하우스와 코엑스가 주최한 2024년 리빙디자인세미나에는 스페이스10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케이브 포우르, 스트링퍼니처의 이사 보 헬버그, 무토의 시그니처 아이템 화이버를 디자인한 알렉세이 이스코스, 중국의 떠오르는 가구디자인 브랜드 다소(多少)의 후정광, 렉슨의 디자이너 마누엘라 시모넬리&안드레아 과글리오가 초청되었다. 그들이 공유한 크reative 인사이트를 나눠보고자 한다.

출처: 알렉세이 이스코스 인스타그램(@iskos.design)

# 케이브 포우르(Kaave Pour) 새로운 집에 대하여

- 2023-현재 새 프로젝트 준비 중
- 2014-2023 스페이스10 공동 설립자 및 경영자



출처: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홈페이지



출처: 스페이스10 인스타그램(@space10)

「 케이브 포우르(Kaave Pour)는 스페이스10(SPACE10)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사람들과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일상 생활을 만들기 위한 연구 및 디자인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이케아(IKEA), 애플(Apple), UN, 하버드(Harvard), MIT와 같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정립된 케이브 포우르만의 디자인 관점과 새로운 집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케이브 포우르는 미래의 집을 예측해 봄으로써 향후 어떠한 디자인이 선호될 것이며, 어떠한 형태와 기능을 담아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왜 그 힌트들이 미래의 집을 예측해 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일까? UN habitat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간의 50~70%를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소비한다고 한다. 또한 집을 짓고 유지하고 꾸미는 등 집과 관련된 소비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출처: 스페이스10 인스타그램(@space10)



출처: 스페이스10 인스타그램(@space10)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주요한 공간인 집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상이다. 집은 가구, 전자, 인테리어, 에너지 등 여러 경제 산업군을 파생시키고 그것들을 다시 결합하는 연결점이다. 따라서 집은 디자인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긴요한 통로가 된다.

케이브 포우르는 '에너지', '음식', '케어', '제작', '이웃'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미래의 집이 갖출 혁신을 예측한다. ①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형태, ②음식을 생산하는 주방에서 저장하고 소비하는 주방으로의 기능변화, ③사람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가구와 공간, ④ 모듈형 디자인의 가구와 집, ⑤공용공간의 개념과 시설의 고도화

혁신 포인트	미래의 집
에너지	50%이상 에너지 자립(직접 생산하여 유지관리에 사용)이 가능한 집의 형태
음식	주방의 기능변화 및 공간 축소
케어	바이오 추적 기술 등을 통한 몸과 마음의 돌봄 공간 '건강한 집,'
제작	집과 가구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도록 모듈형 형태로 변화 장인적 장식디자인 축소, 실용적인 생산과 다양한 확장 가능한 모듈 형태의 디자인 추구
이웃	공용공간(커뮤니티시설)의 확장, 잠시 머무르는 공간의 공유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이 그가 예측하는 미래 집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집의 모습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무엇일까? 그 답은 디자이너 각자가 찾아야 할 것이다. 케이브 포우르가 분석한 '미래의 집'은 이를 위한 좋은 힌트다.

출처: 스페이스10 인스타그램(@space10)



# 보 헬버그(Bo Hellberg) 스팅 75주년 스웨덴 전통 디자인브랜드

- 2018-현재 이스코스 디자인(Iskos Design) 설립
- 2010-2018 이스코스 베를린 디자인 설립 파트너
- 2009-2000 콤플로트 디자인(Komplot Design) 디자인 어시스턴트
- 1993-1996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 디자인 스쿨 졸업



출처: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홈페이지



1949년에 탄생한 스텝퍼니처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대가 변했는데 왜 50년대의 현대주의 클래식이 현대적이라 여겨지는 걸까? 그리고 스텝퍼니처는 어떻게 42개국 이상에 퍼져있는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일까?

스팅퍼니처의 가치는 「스웨덴 전통」이라는 스토리에 기인한다. 「스웨덴 전통」이라는 스토리는 스텝퍼니처의 경영 전반에 작용한다.

단계	운영방식
생산	제품의 98%이상 스웨덴에서 제작, 1949년 설립 당시의 동일한 제조환경 유지
마케팅	(49년당시) '스팅퍼니처 = 최조, 혁신제품 = 혁신적, 사회적 지위자' 공식 창출 (현재) '전통 = 품질' 공식으로 장인의 의미를 부여하고, 현대의 공간에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모습으로 '현대주의 클래식'이라는 특유의 포지셔닝을 형성
관리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치수와 디자인이기 때문에 수십년 전 제품(유산)과 현재 생산 제품이 결합 가능함을 강조. 42개국에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은 생산 물품의 단순화이며, 소비자도 상품을 수리하기가 용이함

스팅퍼니처는 단순한 형태, 기능, 품질, 공정한 가격,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요소를 충족한 제품만을 생산한다. 지속가능성을 갖추면서 비싸지 않은 제품을 내놓기 위해 불필요한 디자인을 배제하고 생산 제품의 수도 제한적으로 유지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업체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처: 스텝퍼니처 인스타그램(@stringfurniture)



출처: 스텝퍼니처 인스타그램(@stringfurniture)

스팅퍼니처의 모든 제품은 초창기와 동일하게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제작의 규모 또한 공장 뒤편의 수력발전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 제작되는 제품의 종류가 간소하기 때문에 재고의 문제도 없다. 만약 50년대 구입한 제품의 부품교체가 필요하더라도 고민할 필요 없이 현재 판매되는 부품을 구매하면 되며, 현재의 제품과 호환, 확장이 가능하다. 바로 이 생산 제품의 간소함이 42개국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비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떠한가?

스팅퍼니처의 시그니처 스텝① 시스템(String① System)은 단순한 모듈 형태의 벽면 고정형 책장이다. "Simple is Best"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 제품은 금속 와이어 패널에 고리로 상판을 끼우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이다. 간결한 형태지만 나무합판, 금속, 유리, 아크릴 등 다양한 소재와 색상을 적용해 공간 분위기와 취향에 맞게 믹스 앤 매치할 수 있다.

스팅퍼니처는 변하지 않는 형태 대신 소재를 통하여 현대적인 트렌드와 감성을 표현한다, 스텝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금속패널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이즈와 형태가 동일하며, 가구의 조립시스템 또한 동일하다. 그러나 금속패널 사이에 연결되는 패널의 소재와 구성품의 변화를 통해 시대감성을 반영하다. 스텝퍼니처는 모듈 하나만 보면 단순하지만 조합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화한다. 공간에 따라 조합 형태를 달리하여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가구를 소비자 스스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스텝퍼니처의 전략은 "Room for Personality"이다. 보 헬버그는 "단순한 모듈 형태의 디자이너 오히려 더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강조한다. 전통적인 유산으로 이어온 고품질의 제품이 현대적 공간 안에서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결합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알렉세이 이스코스(Aleksej Iskos) 나만의 디자인 언어의 중요성

- 2020-현재 스트링퍼니처(String Furniture) 총괄 마케팅 디렉터/CMO
- 2017-2020 다이슨(Dyson) 영국 런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2014-2017 에델만(Edelman) 유럽지역 홍보 담당 수석 부사장
- 2011-2014 DDB 프랑스 파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지방시(Givenchy), 예서 르쿨트르 (Jaeger Le Coultre), BMW 등 명품 브랜드 광고 총괄



출처: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홈페이지



출처: 알렉세이 이스코스 인스타그램(@iskos.design)

건축학을 전공한 산업디자이너 알렉세이 이스코스는 디자인을 스토리텔링의 예술로 바라본다. 즉, 나만의 디자인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통해 시작되는 디자인프로젝트는 미션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 미션 속에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고려 요인들을 반영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디자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나만의 디자인 언어'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그것을 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스코스는 말한다.



출처: 뮤토디자인 인스타그램(@muutodesign)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무토(Muuto)의 <화이버> 의자는 이스코스가 이스코스 베를린 디자인회사를 설립할 당시 진행했던 프로젝트이다. 이 제품에 사용된 디자인 언어는 '조화'로,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조화로운 디자인의 의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제품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느껴지는 이미지도 다른데, 이스코스는 의자를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유기적인 라인의 고리형태가 표현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언어는 사용적 측면에도 반영되어 '누구에게나 편안한 의자'가 되도록 다양한 체격의 사용자들이 직접 목업에 앉고 사용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4년간 진행하였다. <화이버>라는 timeless design은 그렇게 수많은 수정 작업을 통해 탄생했다.

### <이스코스가 디자이너들에게 전수하는 디자인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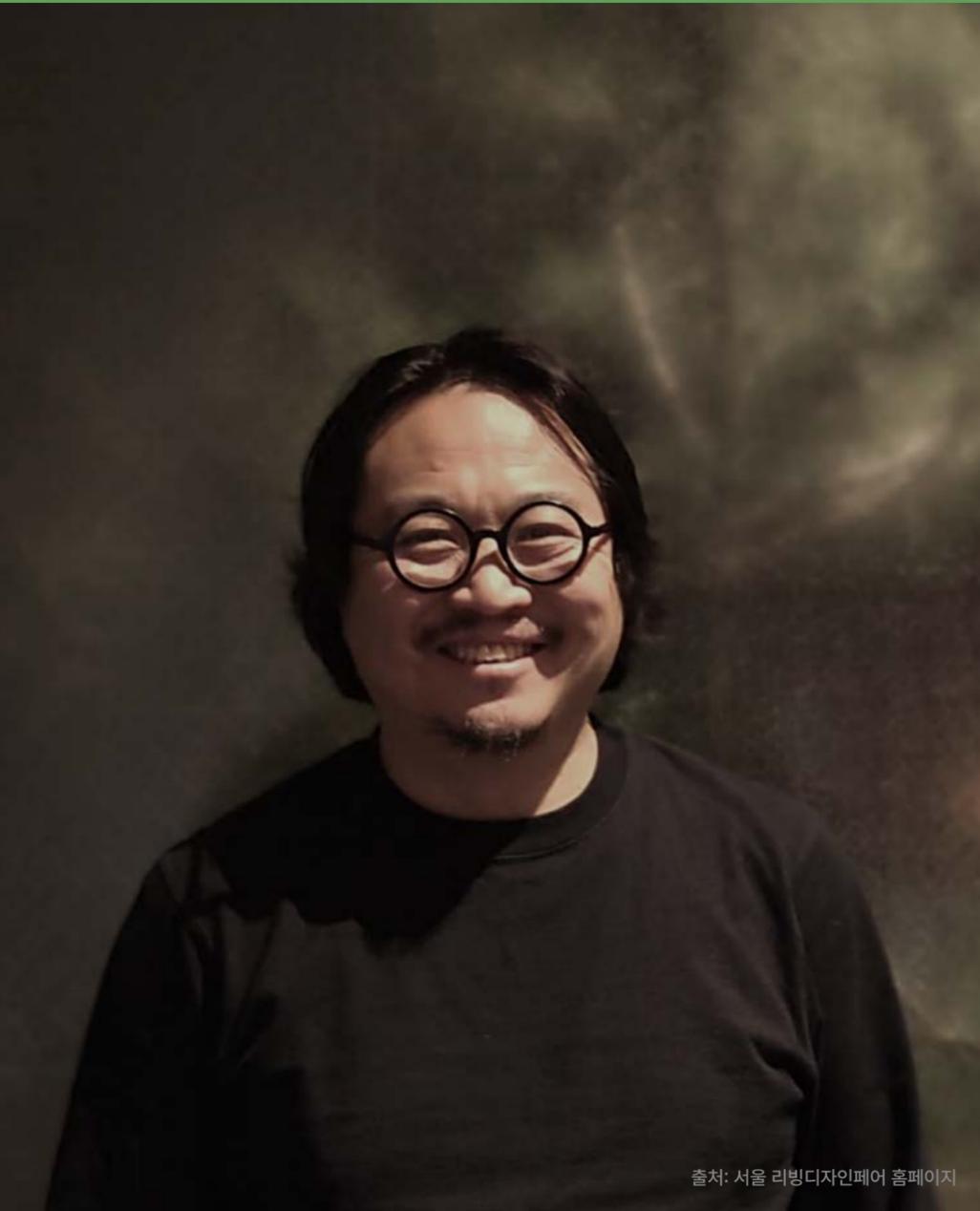
1. 사용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어느 디자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경우 목업 제작과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 '나만의 언어'라는 차이점을 '소재'에서 찾아보자.
3. 아이디어가 실제화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라. 거절당했을 때 문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4. 디자인할 때에는 스스로에게 데드라인을 주어야 한다.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우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출처: 뮤토디자인 인스타그램(@muutodesign)



# 후정광(Zhengguang Hou) 지속가능 디자인의 도전

- 2008-현재 다소(多少)가구 디자인 브랜드 설립
- 2019-현재 디자인 스프링 상하이 설립
- 2012-현재 중국 국제 가구 협회 디자인 파트 디렉터
- 2012-현재 상하이 산업 디자인협회 부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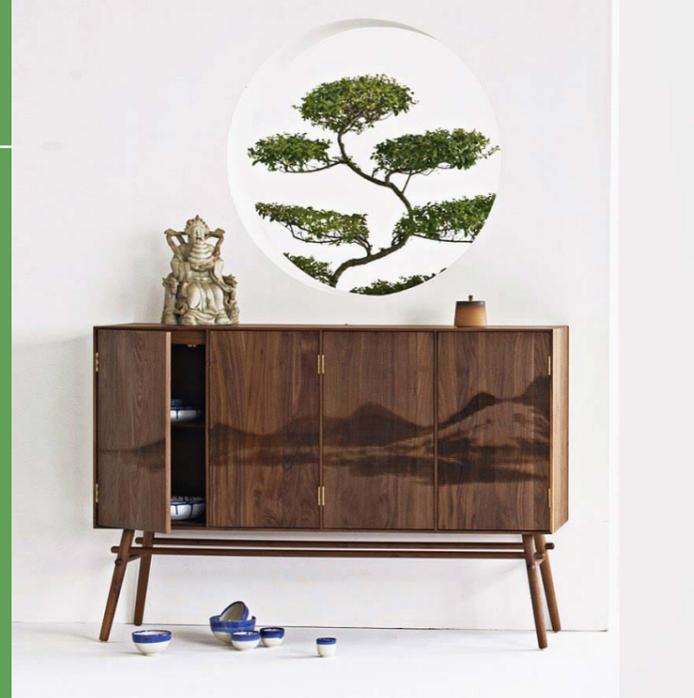


출처: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홈페이지



후정광이 이끄는 중국의 디자인브랜드 '다소(多少)'는 노자의 <도덕경><sup>1)</sup>,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미니멀리즘><sup>2)</sup>을 표방한다.

후정광은 디자인, 제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실천하는 본인만의 디자인 언어를 전통적인 "패치"기법에서 찾았다고 한다.



출처: 다소 moreless 인스타그램(@moreless.cn)

나무 조각들을 패치워크로 엮어 만든 중국 당나라 시대의 악기에서 착안하여 후정광만의 디자인 언어를 정립하였고, 상품성이 없어 버려지는 나무 조각들을 활용한 가구디자인을 하고 있다.

디자이너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훌륭한 디자인 결정으로 무분별한 벌목을 방지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상품성이 없다고 여겨진 자원에 디자인 언어를 부여하면, 환경보호는 물론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뿐만 아니라 더 독특한 디자인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가구 소재로 사용할 수 없는 대나무나 잘못 만들어져서 폐기되는 세라믹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단점을 보완한 가공 방법을 통해 전에 없던 독창적인 소재를 만든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1) <도덕경>에서 노자는 천하의 만물은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오직 채우지 않기 때문에 감쌀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함.

2) "Less is more" 적은 것이 풍부하다는 뜻으로 20세기 건축사를 열은 미니멀리즘의 창시자 독일 출신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말. 미니멀리즘은 이전의 장식적 디자인을 밀어내고 단순성의 미학을 보여줌



출처: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707376](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9707376)

중국의 소비자 트렌드 또한 절제된 디자인 즉, 미니멀리즘과 환경을 생각하는 메시지 등이 표현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지향한다며, 소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마누엘라 시모넬리 & 안드레아 콰글리오 (Manuela Simonelli & Andrea uaglio)

- 콰글리오 시모넬리(Quaglio Simonelli) 공동설립
-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2007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IF 제품 디자인 어워드 수상(2007년, 2008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22년, 2023년)
-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2022년, 2023년, 2024년)
- CES 혁신 디자인 수상(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출처: 서울 리빙디자인페어 홈페이지



## IDSC

「티비속에서도 인스타그램에서도 렉슨의 <미나> 램프가 자주 보인다. 국내 베스트셀러 램프인 렉슨 미나와 렉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콰글리오 시모넬리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 영감,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시모넬리는 호기심은 디자인의 기본 조건이며,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다듬어진다고 말한다.

또한, 좋은 디자인이란 제품과 사람 사이에, 사랑에 빠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좋은 디자인에 대한 기술적인 팁을 주자면 외관은 너무 혁명적이면 안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크기와 소재에 있어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을 지키면서 새로움을 연출할 때 가치가 만들어지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출처: 콰글리오 시모넬리 인스타그램(@quaglio.simonelli)

렉슨의 <미나>라는 작은 램프가 작지만 가치있게 평가되는 이유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렉슨인스타그램(@lexondesign)

시모넬리는 <Timeless Design은 Timeless Look에서 착안한다>며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팁을 전하였다. <미나>는 램프라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외관을 띠고 있다. 이것이 바로 Timeless Look이다. 이 간결한 형태에 소재와 컬러의 프리미엄으로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출처: 렉슨인스타그램(@lexondesign)

너무 장식적이지 않은 단순함은 오히려 더 다양한 확장의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미나를 비롯해 미나 컬렉션과 패밀리까지, 균형 안에서 아주 작은 새로움들을 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확장된 디자인이 연출되었다.

앞서 디자인은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질문들로 다듬어진다 고 하였다. 무엇으로부터의 질문일까? 질문은 사용자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렉슨은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때 사용자경험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보관하며 충전시키는 <오블리오>라는 상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쓰는 것에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아예 핸드폰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다는 경험 조사에서 착안한 것이다. 핸드폰이 보이지 않게 충전되는 전자제품은 그에 대한 대답이다.

외관은 전통적인 꽃병 모양으로 timeless lock을 따랐고, 프리미엄 기술을 접목하여 균형을 유지했다.

출처: 콰글리오 시모넬리 인스타그램(@quaglio.simonelli)



# 새롭게 도약하는 인천디자인협회

ARCHIVE



2004년, 인천의 산업디자인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주던 디자인 전문가들이 있었다. 인천지역의 디자인 교수들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의 전문가들까지 총 127명의 디자인 전문가들은 「인천산업디자인협회(현 인천디자인협회로 이하 '인천디자인협회'라고 함)」를 설립하며 인천광역시가 산업디자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주었다.

「인천디자인협회」의 전신은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 전문가 단체였던 「인천산업디자인협의회」이다. 1997년에 시작된 「인천산업디자인협의회」는 인천광역시에 산업디자인이 육성되려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탄탄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흩어져 있던 전문가들을 모아 2003년 12월 10일 사단법인 「인천산업디자인협회」를 설립하였다.

조영민

인천디자인협회 협회장

INDAS 산업 협회 인천디자인협회



2023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국제교류전

협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선출하여 임원단을 꾸리고 시각, 제품, 공예, 환경, 법인이라는 5개의 분과 조직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7개 분과가 조직됨) 사단법인 등기증과 함께 협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이 명시된 정관, 사업계획서를 인천광역시에 등록하여 보다 체계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인천 산업디자인의 시작을 함께한 「인천디자인협회」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자인의 심의와 디자인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디자인 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으로 방향을 결정해 주기도 하고, 디자인학술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네트워크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전시행사, 연구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렇듯 협회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 발전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동반자로서 함께해 왔다.



2023 인천디자인협회(前 인천산업디자인협회) 동계총회

<인천디자인협회 조직도>



2012 파리디자인위크

<인천디자인협회 연혁>

일 자	주 요 활 동
1996.11.	발기인 대회 및 회원구성
1997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 정관 및 회장선출 제1회 인천산업디자인 창립전 제1회 정기총회 <98년도 사업계획>
1998	제2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회전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 장학금 수여식
1999	제3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회전 -2002년 월드컵 환경디자인전-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도 제35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디자인 심사 제80회 전국체전 및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산업디자인협회의 특별전시회전 부평구청 공원조형을 디자인 및 감리 제1회 국제세미나 -호주디자인너 초청-
2000	제4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회전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21C공예-디자인전
2001	제5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회전 -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생활문화디자인-
2002	제6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회전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2003	제7회 인천산업발전협회의회전 -경제특구 기반조성을 위한 디자인-
2003.12.	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 → (사)인천산업디자인협회)
2004	제8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회전
2005	제9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회전 -2005 인천특화상품개발 디자인 제안전-
2006	제10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의회전
2007~2010	온라인 인천산업디자인협회전(제11회~제14회)
2011	제15회 인천산업디자인협회전 인천문화디자인포럼 주관
2012	2012 인천디자인워크숍 포럼 주최 2013인천국제디자인페어 공동 주관
2013	인천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E.I개발 인천디자인재능나눔사업 참여 -강화군 및 사회적기업 디자인 자문위원단-
2014~2016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공동 주관 인천디자인워크숍 주관
2018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공동 주관 인천 사회적 문제 솔루션 디자인 공모전 개최
2019~2023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공동 주관



2017 인천디자인워크숍 간담회

<협회의 목적과 역할>

협회의 정관 제2조(목적)에는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내외 학술 정보교류 및 창조적 연구 활동을 통하여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시민과, 더불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지역 산업 및 경제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 기여함의 목적이 있다.” 고 되어 있다.

제4조(사업)에는 협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선도모
2.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 및 공제활동
3. 창작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관련 전시발표
4. 국내외 디자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인천의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정책사업 기획
6. 디자인 산업 관련 각종 용역 및 수탁사업 시행
7. 학술지 및 협회지타디자인 관련 간행물의 발간
8. 민관연학 연계 학술세미나 개최 및 취업설명회 개최
9. 기타 이사회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산업디자인협회 역대 회장>

1997-2005

**이호명**  
인천대학교 교수

2006-2011

**류창희**  
가천길대학교 교수

2012-2017

**이진**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2018-2019

**정학성**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2020-2023

**송흥권**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2024-

**조영민**  
인하대학교 교수



2013 인천국제디자인페어 디자인 포럼



2023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조영민 협회장 인사말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하며 협회의 살림을 꾸리는 일은 보통의 책임감으로는 어렵은 일이다. 협회 살림을 담당해 온 역대 임원들의 애향심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협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이다.

매년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정책을 심하는 디자인사업발전협의회



# Incheon Design Association



## 조영민

인하대학교 교수  
2024년도 인천디자인협회 협회장

- 현) 인하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부학장
- 현)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 현) 대통령직속 융산공원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현) 인천디자인협회(INDAS) 회장
- 현)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부회장
- 현) 한국도시디자인학회 부회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학/석사
-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문위원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미래도표지연구 전문위원
- 도시경관디자인학회 이사

「인천산업디자인협회」는 올해 「인천디자인협회」로 개칭하였다. 산업디자인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확장되고 유연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현 회장직을 담당하며 협회의 새 단장을 마친 인하대학교 조영민 교수를 만나 인천디자인협회의 새 비전과 역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이자 인천디자인협회의 협회장 조영민입니다. 제가 회장을 맡게 된 사유는 무엇보다 전임회장님들의 강력한 권고와 2006년 인하대학교 부임 후 인천의 디자인산업 부흥과 발전을 위해 미약하지만 역할을 할 때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인천 디자인 학술 진흥을 위한 디자인 지식산업의 육성, 미래세대 육성, 디자인 연구사업 등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판단하여 봉사의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륜, 역량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협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지원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려운 중차대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은 여러 환경의 여건상 산/학/관/연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Q. (사)인천디자인협회가 최근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역사 깊은 협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협회의 역할과 미래를 나타낼 새로운 명칭에 대해 협회원들과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인천산업디자인협회\_인다스(약칭형)의 연속성과 역사성과 포괄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고, 기업 중심인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인 중심이라는 차별성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에따라 (사)인천디자인협회\_Incheon Design Association\_인다스(INDAS\_약칭형)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변화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변화의 파고는 나노공학, 로봇공학,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로 발현되며 사회와 인간의 생태에 영향을 주고, 사물과 인간, 사회와 세계 등의 관계도 변화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대환경의 변화 속에서 특히 디자인 분야는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한 물리적인 단절과 협회 활동의 기능적 한계는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현재 인천에 존재하는 인천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두 날개, 전문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회와 교수/전문인 중심의 산업디자인 협회에 대한 역할 구분과 기능,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명확히 구분짓고, 서로 시너지를 통한 지역과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명칭까지 변경하며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임하고자 회장 임원진 이하 모든 회원들이 각오를 다잡고 있습니다.

**Q. 협회의 비전과 주요역할을 소개해주세요.**

협회의 첫째 목적은 협회의 활성화를 통해 인천 지역 디자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디자인산업 및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디자인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협회의 임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반연구와 디자인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에 있는 예비 디자이너의 교육, 육성 및 지원과 산업체 연결을 통한 인천의 디자인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협회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인천지역의 디자인 관련 교육자, 전문가, 작가, 산업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인천디자인협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 가능하며, 이사회 승인심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중점사항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올해 치루어질 2024인천국제디자인페어의 전체 기획과 공동주관사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합니다. 이번 국제페어는 크게 전시, 포럼으로 구성되며, 전시를 더욱 강화하여 4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전, 인천/경기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예비디자이너전, 그리고 기업전으로 나누어 치루어집니다. 포럼은 격식과 틀을 내려놓고 청중들과의 대화로 진행되는 디자인콘서트의 형식으로 기획했습니다.

올해 페어의 타이틀은 re,start(다시, 시작)이며, 주제는 기술과 새로운(Diversity & Connection)입니다. 인다스가 올해를 기점으로 ver2.0을 맞이하려는 다짐처럼 페어도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고자 하는 담론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로 18년차인 국제행사답게 지역과 함께하며 국제적인 인지도와 브랜드 형성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년의 국제페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협회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는 것이 올해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하며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협회의 기초가 다시 잘 뿌리내려지길 바랍니다. 이제 협회도 올해의 페어 타이틀과 같이 re, start! 다시 시작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디자인협회 안내**

인다스(INDAS)는 경인지역 단합을 통해 산관학연의 허브역할과 지역 디자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연 락 처 032-860-7898  
 사 무 국 인천 남동구 아람대로 1085 창작하는대로 2층 206호  
 이 메 일 indas\_official@naver.com

# 인천디자인산업계의 중심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이라는 산업생태계는 공급시장과 수요시장, 그리고 산업기반을 지지하는 기관들로 구성된다.

과거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산업생태계는 수요시장은 크나 공급시장이 부족하여 자족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산업디자인 육성 정책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고자 했다. 2004년 실시된 산업디자인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2003년 디자인전문회사는 10개사에 불과했으나 2004년 말 29개사가 되었다. 무려 2배에 해당하는 19개사가 새로 창업되거나 인천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igdfA** (사)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김희경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협회장



2023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이 중심에는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가 있었다. 인천의 디자인 공급시장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자인전문회사들이 모여 협회를 설립하였다. 디자인전문회사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기업들은 서로를 도우며 디자인전문회사를 육성하고자 하였고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 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2024년 5월, 인천의 디자인전문기업 수는 450개사로 2004년 대비 무려 45배나 증가하였다. 협회는 협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존재한다. 그 시장을 형성하는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을 때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질적 양적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인천의 산업디자인 생태계에서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 디자인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이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발급한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기업



2012 디자인워크숍 전경



2022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출범 비전선포식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지역 디자인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며 동반성장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올해에도 인천광역시의 대표 디자인행사인 인천국제디자인페어의 주관사로 참여한다. 인천광역시가 한 해도 빠짐없이 디자인페어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의 힘이 가장 컸다. 지난 2012년 인천광역시가 건축 살림을 하던 시절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사업이 잠시 폐지됐었다. 이때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의 디자인 재능봉사를 통해 인천국제디자인페어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 예산과 지원이 있던 때와 비교하여 규모는 작았지만, 디자인 산업계의 자생적 의지와 요구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부활한 인천국제디자인페어는 올해에도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사우단과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인천디자인협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re-start'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페어에서는 디자인산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교류하는 디자인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2023 찾아가는 K- 디자인컨설팅

디자인 기업관을 통해 인천 산업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디자인 작가 및 미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디자인 전시와 디자인 토크 콘서트, K-디자인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는 현재 10대 임원단이 이끌고 있다. 역대 임원진들은 임원 봉사 이후에도 다시 협회원으로서 활동하며 협회 사업을 지지하고 지원한다. 검색창에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를 검색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검색해 보길 바란다. 제일 먼저 검색되는 유튜브 영상 속에서 9대 임원진이 10대 임원진의 박수를 받으며 퇴진하고 10대 임원진이 격려 속에 인사하는 모습은 협회원들의 끈끈한 연대감을 보여준다.



2023 디자인콘서트 공모전 작품전시



2022 디자인콘서트 공모전 최종심사



2023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디자인워크샵



2023 정기이사회 및 춘계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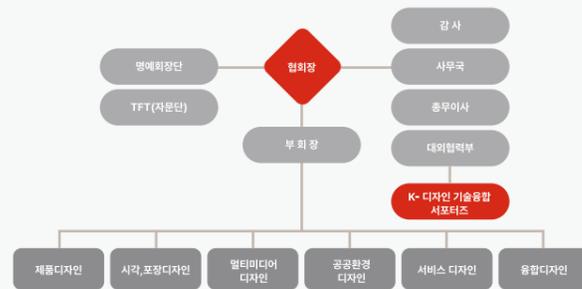
(사)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역대 회장명단

구 분	기업명	회 장
제 1대	(주)아르필	강도윤
제 2대	(주)휴리스	남기철
제 3대	성광디자인	유관무
제 4-5대	비콘디자인	최병철
제 6대	진원디자인프린텍	정용석
제 7대	(주)에이엔에프	강도윤
제 8-9대	(주)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제 10대	(주)더오아이디	김희경



2023 기업인특강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미술학부) 김희경 협회장

(사)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조직도



2023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김희경 협회장 인사말

# Incheon Gyeonggi Design Firms Association



## 김희경

(주)더오이아이디 대표  
제 10대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협회장

- 현) 디자인전문회사 (주)더오이아이디 대표
- 현) (사)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회장
- 현)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이사 / 인천경기지역단체장
- 현) (사)인천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디자인융합위원장
- 현) (사)인천학회 창립회원/ 공공디자인 이사
- 현) K-디자인기술융합서포터즈 단장
- 현) OEID 사회문화연구소 소장
- 현) 인천사회적경제기업 지역역량강화 프로보노 위원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금속공예 전공



김희경 협회장  
인터뷰 및 협회 소개영상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의 10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주)더오이아이디의 김희경 대표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주)더오이아이디 김희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소개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희경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디자인을 업으로 시작한 지 40년 되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컴퓨터 디자인으로의 전환기를 거쳐 AI시대를 맞이하게 된 디자인 세대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 여러분의 선배 세대인 거죠. 지금은 서비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기획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기업 더오이아이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협회 회장을 담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초기에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인이 참 외로운 직업이었습니다. 자존심에 대한 직속 선배 아니면 감히 찾아가 논의할 수도 없었고 전공 분야가 아니면 경계를 넘나들기도 어려웠습니다. 분당에서 18년을 일하다 내려왔는데 인천에 협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디자인전문회사가 19번째 회원사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저의 협회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통의 즐거움과 선배의 끈끈함, 동료로서의 공감대, 고향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민 끝에 협회장을 수락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Q.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다들 물어보세요. 인천만 해도 버거운데 왜 굳이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냐고. 이도 저도 아닌 명칭이 100% 지지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희가 인천에 경기를 포함시킨 이유는 인천디자인기업의 성장이 흩어져 있는 경기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의 중심이라고 하는 수도권 서울의 경계권역 속에서도 인천이 자생하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인천(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으로 통한다는 것-All ways incheon-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할까요.

**Q. (사)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로 바뀌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아직은 경기 쪽에 큰 힘을 못 실어 드리고 있지만, 경기권역의 기업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기DK웍스나 시흥제조기업협회 등 저희 협회와 협업하고자 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인천, 경기의 각 협회사들도 열심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영역과 시장을 넓히는 과정 속에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Q. 협회의 비전 및 주요역할을 알려주세요.**

점차 협회의 규모를 키워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한편 산업 간의 융합과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의 리더로서 수도권역인 인천-경기 지역을 아우르는 디자인 산업계의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제조기업의 성장을 돕는 K-디자인기술융합서포터즈의 활성화로 다가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을 위한 공공디자인 영역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겁니다.

**Q. 협회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국(info@igdfa.kr, 070-4895-0879)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협회장인 저(김희경 협회장 010-3921-0401)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입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정규회원으로, 디자인소통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특별 기업회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디자인경력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도 준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회 홈페이지(www.igdfa.kr)를 통해 협회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Q. 협회에 가입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긴밀한 전문 네트워크입니다.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KODIA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회원으로 연계가 입되며 전국 8개 지회와 해외 글로벌 디자인네트워크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사 간의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기관 및 용역 정보의 전달, 최신 디자인 트렌드의 정보 및 교육 참여, 다양한 경험과 의견의 교류, 경조사 지원, 공동 마케팅과 다양한 협업 등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입니다. 소셜 리더로서의 역할을 K-디자인기술융합서포터즈 및 전문가 자문단 활동으로 이어가며 다양한 기업, 기관, 협회들과의 교류로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Q. 2024년도 협회의 중점사항을 알려주세요.**

현재 우리 협회는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사업들의 자문기구로서의 활동과 인천의 산업환경개선 프로젝트 수행,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된 디자인용역사업 수행,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공모사업인 K-디자인 콘서트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자인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향후 디자인 기업들이 보유한 자체 상품들의 공동마케팅 방법과 디자인기업의 자생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더 많은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추진하여 협회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디자인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고 협회의 입지 또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의 협회 가입을 통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웃음)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 안내**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IGDFA)는 인천-경기 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를 중심으로 디자인 산업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연 락 처 070-4895-0879  
사 무 국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085 창작하는대로 2층  
이 메 일 info@igdfa.kr    홈 페이지 www.igdfa.kr

ARCHIVE

(주)디자인톡톡  
since 2005

인천 최초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주)디자인톡톡**

Special Interview Project  
**INTERVIEW**



(주)디자인톡톡  
**대표 김우이**

2023년, 인천광역시에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이 탄생하였다. 디자인 역량 측면에서도 경영 측면에서도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디자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청신호기에 반가운 마음이다. 2005년 인천광역시에서 디자인회사를 설립한 이후 18년 만에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주)디자인톡톡의 이성진 대표**, 그가 꿈꾸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 우수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산업디자인전문기업'으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매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유망10개사, 선도10개사)

### Special Interview Project

Q. 디자인특독의 대표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대표: (주)디자인특독은 2005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처음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로 출발하여 지금은 시각, 포장, 영상까지 제품과 관련된 모든 디자인을 원스톱으로 개발하는 종합디자인 전문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해에도 수많은 디자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서 몇 가지만을 꼽기가 어렵네요.(웃음)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심사로 제출했던 5개의 디자인포트폴리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Q. 축하드립니다. (주)디자인특독으로 인해 인천에서도 드디어 우수디자인전문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디자인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정 소감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대표: 안녕하세요. (주)디자인특독의 이성진 대표입니다. 지난해(2023년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웃음)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산업디자인 수준이 많이 올라온 만큼 저를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우수디자인 전문기업이 계속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ARCHIVE 인천 최초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주)디자인특독



- 1. 이온폴리스 비데 수전
- 2. Xiro 블루투스 스피커
- 3. CPD 캠지
- 4. LPK 로보틱스 자율주행
- 5. LS Mtron UI/UX

ARCHIVE 인천 최초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주)디자인특독



xiro-블루투스 스피커



iF Award 2024 수상사진



Q. 디자인전문기업이라 그런지 회사 곳곳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인력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대표: (주)디자인톡톡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사 앞으로 커널 수변이 조성되어 뷰도 좋고 근무 공간이나 휴게시설 등에도 신경을 써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디자이너는 모두 정규직원이고 현재 팀장급으로 계시는 분들은 저와 오랜시간 근무하며 함께 성장해온 분들입니다. 디자인회사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오래 일하고 싶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디자인”이라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모토입니다. 입구에도 적혀있는데 보셨나요?(웃음)

저희가 종합디자인 전문기업이다 보니 사진촬영과 영상제작을 진행하는 디자인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채광이 많이 드는 공간으로 위치하였고 시설과 장비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래 합을 맞춰 근무해온 만큼 서로 긴밀히 소통하여 제품부터 그 제품에서 파생되는 브랜드, 홍보, 포장, 영상까지 종합적인 디자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Q. 홈페이지에서 가상오피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상오피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타트업 중에 오비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나 VR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제가 그 쪽 분야에 한참 관심이 많던 시기에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공간 안에 필요한 디자인을 저희가 제공하고 대신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디자인톡톡 가상오피스는 이 분야를 살펴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오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 본 건데 오비스에서도 관심을 주더라고요. 저희가 이 가상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지 의견도 주면서 현재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몇 해 전 코로나라는 재난시기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는데 가상오피스 덕분에 무리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상오피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더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Q.**  
대표님께서 인천 산업디자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금의 디자인 산업도시 인천이 되기까지 기여한 공로로 인천시장 표창도 4회나 받으시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표창도 1회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제가 회사를 설립했던 2005년에는 인천광역시에 산업디자인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 당시에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자 모인 분들의 연령이 제 또래의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자주 모여 교류하면서 젊은 패기로 실험적인 디자인 전시도 시도해보고 국제디자인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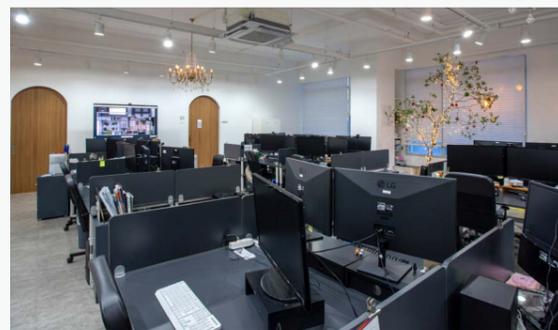
지금 디자인사업단장님이 되어 계시는 이완석단장님과 제가 동갑입니다. 젊은 시절에 뜻이 맞는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행운으로 그 모든 과정이 보람되고 즐거웠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에는 디자인전문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인천디자인기업협회(현 인천경기디자인기업협회)가 있는데 2016년도에 서비스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마침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라, 인천광역시에 서비스디자인을 소개하고 정착시키는 데에 저도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웃음)

또,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디자인사업이나 정책에 항상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에 휩쓸리기보다 저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보게 되는 거죠.

또 디자인페어나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계산 없이 열정을 쏟았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진심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공로표창이 5개나 되었네요.(웃음)

인천광역시는 인천디자인지원센터라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에 대한 애정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디자인톡톡 사무실



IF DESIGN AWARD 2024 수상 명패



인천디자인서포터즈 14기와 디자인교육을 제공하는 이성진 대표

**Q.**  
지역의 디자이너 육성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맞습니다. 인천의 산업디자인이 매력 있는 시장이 되려면 우수디자인기업도 많이 나와야겠지만 애乡심을 가진 우수한 디자이너가 육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예비디자이너들에게 양질의 디자인교육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에 애乡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회사로 초대하여 디자이너와의 만남이나 흥미를 가질만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매년 선발하는 <인천디자인서포터즈 14기> 친구들을 초대하였구요. 디자인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디자인회사의 업무환경과 디자인 노하우를 알려주고자 디자인팀장님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최종결과물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시안들과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한 비하인드스토리도 공유하고, 우리 회사의 디자이너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고 만나며 숨겨진 이야기도 공유하다 보면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웃음) 인천시에서도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애乡해주고 계시지만 실무에 있는 디자인기업들도 스스로 사업장을 오픈하고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주)디자인톡톡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흥미로운 디자인프로젝트나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요?

산업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디자인 개발도 많이 추진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경제가 활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움추리고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아주 공격적인 시장육성을 하고 있죠. IF디자인어워드에서도 상위 10개가 거의 중국기업이에요. 중국제품의 디자인수준과 퀄리티는 나날이 높아지는데 국내경제는 계속 위축되고 개발을 안 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중국시장에 먹히겠다 하는 두려움이 큼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디자인의 상품화를 하면서 계속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좋고 디자인 외주가 전과비교하여 매우 작아졌지만,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자체 디자인의 상품화를 완성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는 음향기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디자인톡톡이 모든 권리를 소유한 자체 상품이라 의미가 남다르고 또 이번에 IF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까지 하여 자부심을 갖고 상품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음향기기 제품은 ESG관점에서도 많은 점수를 받았어요. 소근육의 발달이 적거나 신체일부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시스템을 설계하고 디자인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기능적 미적으로도 우수해야겠지만, 그 기반에 신체적 언어적 여러 장벽이 없이 소통되는 경험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상오피스를 확대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의 채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차별요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ESG디자인이나 ESG경영이 최대 이슈입니다.

또, AI디자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디자인톡톡 자체 디자인세미나를 열었어요. 인천디자인교육센터로부터 AI디자인전문강사님을 추천받아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주)디자인톡톡 리플렛을 미드저니를 활용하여 제작해보고 있는데, 디자인기업들이 AI디자인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AI디자인을 아는 디자이너와 그렇지 않은 디자이너로 구분되고 AI디자인을 아는 디자이너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디자인톡톡 스튜디오



인천광역시 표창장 (이성진 대표)



인천디자인서포터즈 14기와 이성진 대표

Q.

지금까지 인천의 자랑스러운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주)디자인톡톡의 이성진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디자인전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동료, 후배 기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디자이너가 유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천을 대표하는 우수한 디자인기업이 최소 4~5개는 되어야 합니다.

그 무리가 기류를 형성하고 우수인력 유입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질적 성장이 이뤄질테니깐요.

우수디자인전문기업에 많이 도전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심사를 가면 '우수디자인기업이 될 정도면 이제 서울에서 운영해야지'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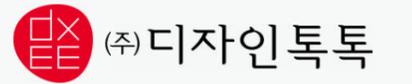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큰 디자인수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인천에 동지를 튼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인천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가 기회입니다.

더 많은 회사가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천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는 기류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인천에는 내로라 하는 디자인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1호가 되었을 뿐, 인천광역시를 주목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디자인톡톡 이성진 대표



(주)디자인톡톡

위 치 인천 서구 청라커널로 280, 701호 702호  
홈페이지 <https://designtalktalk.com/home/>  
전문분야 종합디자인전문회사(시각,포장,제품,멀티)



## 인천지역 디자인 관련학과 보유 대학교 정보(가나다 순)

경인여자대학교	광고디자인학과	주 소	2104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63 본관 1층 광고디자인과
		연 락 처	032-540-0140
		홈 페이지	https://dept.kiwu.ac.kr/design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디자인팩토리코리아 (DFK)	주 소	2198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진리관 B동
		연 락 처	032-749-3707
		홈 페이지	https://dfk.yonsei.ac.kr/
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주 소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120번길 20 가브리엘관
		연 락 처	032-830-7066
		홈 페이지	https://yd.iccu.ac.kr/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디자인학부	주 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인천대학교 28호관
		연 락 처	032-835-8555, 8963
		홈 페이지	https://design.inu.ac.kr/design
인하공업 전문대학교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00 인하공업전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2호관
	학 과 명	연 락 처	홈 페이지
	건 축 학 과	032-870-2250	https://dept.kiwu.ac.kr/design
	실 내 건 축 학 과	032-870-2260	https://interior.inhatc.ac.kr/interior
	산 업 디 자 인 학 과	032-870-2280	https://interior.inhatc.ac.kr/interior
	패 션 디 자 인 학 과	032-870-2390	https://fashion.inhatc.ac.kr/fashion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주소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100, 인하대학교
	학 과 명	연 락 처	홈 페이지
	조 형 예 술 학 과	032-860-8160	https://finearts.inha.ac.kr
	디 자 인 융 합 학 과	032-860-8170	http://www.inhadesign.com
	의 류 디 자 인 학 과	032-860-8130	https://fashion.inha.ac.kr
재능대학교		주소	22573 인천 동구 재능로 178 IT관
	학 과 명	연 락 처	홈 페이지
	시 각 디 자 인 과	032-890-7320	https://dept.jeiu.ac.kr/vcd
	사 진 영 상 미 디 어 과	032-890-7270	-
	게 임 아 트 디 자 인 과	032-890-7231	https://dept.jeiu.ac.kr/gad
	인 테 리 어 디 자 인 과	032-890-7330	https://dept.jeiu.ac.kr/id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주소	221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13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본관
	학 과 명	연 락 처	홈 페이지
	공 간 디 자 인 과	032-770-8114	https://home.chungwoon.ac.kr/space
	무 대 영 상 디 자 인 과	032-770-8114	https://home.chungwoon.ac.kr/fa
	패 션 디 자 인 과	032-770-8114	https://home.chungwoon.ac.kr/fashion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주 소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5기술관
		연 락 처	032-510-2360/2363
		홈 페이지	https://www.kopo.ac.kr/incheon/content.do?menu=7250

##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검색은!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순간 | [search.idsc.kr](https://search.idsc.kr)



디자인개발 지원금 지원  
디자인비즈니스 플랫폼  
디자인전문회사 포트폴리오

주관기관 등록 및 검색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디자인전문회사를 찾고 계신다면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 등록 및 검색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화장품 용기, 조명, 모빌리티, 등」 키워드만 입력하면 주관기관으로 등록된 디자인회사의 정보와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등록제도 | 디자인전문회사의 최신 정보 관리 및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참여자격 부여를 위해 인천디자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입니다.

등록대상	등록분야	등록방법	등록기간
· 전국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 必)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디자인, 서비스디자인	· 주관기관 등록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및 등록 (https://search.idsc.kr)	· 상시운영 ※ 주관기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갱신철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함

제44회

# 인천광역시 6.27.목 ~ 6.29.토 공예품대전 동상이상작 8선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시는 27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제44회 인천공예품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천공예품대전'은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공예품을 발굴하는 공모전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 접수된 총 140점의 출품작을 심사해 최종 입상작 40작을 선정했다. 이 중 특선 이상 25작은 '제5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의 출품 자격이 주어지며, 본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예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청주시 문화제조창 갤러리6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제5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12.13.금 ~ 12.15.일  
청주시 문화제조창 갤러리6

디자인과 새로움  
**RE:START**



2024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인천스타트업파크 2024. 10. 31. THU - 11. 02. SAT

- |   |  |   |
|---|--|---|
| <p><b>1F</b> INTERNATIONAL EXCHANGE DESIGN EXHIBITION</p> <p><b>국제교류전</b><br/>국내외 작가 및 디자이너의 작품전시</p>     | <p>DESIGN FIRMS EXHIBITION</p> <p><b>디자인기업전</b><br/>인천경기디자인기업소개<br/>디자인콘서트 및 AI 체험</p> | <p>DESIGN TALK CONCERT</p> <p><b>디자인토크콘서트</b><br/>10.31. (목)<br/>13:00 ~ 16:00 (3 sessions)</p> |
| <p><b>B1</b> DESIGN EXHIBITION WITH PROSPECTIVE DESIGNER</p> <p><b>예비디자이너전</b><br/>인천 / 경기지역 대학생 작품전시</p> | <p>* <b>주제</b><br/>디자인과 인공지능(AI)융합으로<br/>바라보는 미래</p>                                   |   |

